AJOU VISION 4.0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아주대학교

시간 속에 새겨지는 자랑스런 50년
마음 속에 다짐하는 아주비전 50년
세상을 이끄는 세계 중심대학으로-
연결지성의 세계적 플랫폼으로-
대학을 바꾸는 대학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학으로 나아갑니다

누우면
앉고 싶고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뛰고 싶고
뛰면
날고 싶고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9 03&04&05 Vol. 27

AJOUINSIGHT.
AJOU UNIVERSITY QUARTERLY MAGAZINE 2019 030405 Vol. 27
꾸다 여름가을겨울
〈아주인사이트〉 2019(4352) 봄호 통권 27호

CONNECTING MINDS

AJOU VISION 4.0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아주비전 4.0 선포식

누우면 앉고 싶고,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뛰고 싶고, 뛰면 날고 싶고-
이것이 아주인이다.
이것이 선구자 정신이다.
대학을 바꾸는 대학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학으로-
아주대학교

04 총장 인사말 06 특집 22 아주의 북소리 27 글로벌인턴십 28 따로, 같이 30 괴짜 같은 진짜
36 강소기업으로 가자 38 전공소개 42 아주홈 & 캠퍼스 43 교직원 마이크 44 파란학기제 46 뉴스 52 솔선기부

왜 4.0인가? 단순한 '배움'을 넘은 가치 창조. 아주비전 4.0은 시대가 원하는 대학의 혁신적 역할에 대한 아주대만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경계 무너트리기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을-

상이한 재료가 용광로에서 합쳐져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융합이라고 한다면, 다가올 미래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연결의 시대' 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독자성이 존중받으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연결'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기대를 담아서 아주대학교의 지향을 표현하는 새로운 슬로건을 'Connecting Minds'라고 정했습니다. '연결지성'이라는 뜻도 있고, 다양한 분야와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곧 낡은 지식이 되고 새로운 지식으로 대치되어 버리는 시대에, 대학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는 사람'을 배출해야 하고,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은 우리 교육의 최대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 아주대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새로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이전에 했던 3번의 유사한 작업의 뒤를 잇는 것이라는 뜻에서 '아주비전 4.0'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4단계를 Training, Teaching, Learning, Creating Values로 본다면 그 네 번째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질적인 분야를 아우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하여 창조적이고 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제 은사이신 스위스 로잔연방공대 마르틴 베텔리 총장의 '의학·공학·자연과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은 수사도 은유도 아닌 닥친 현실입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가고 있고 경계는 무너지는 중입니다.

총장 박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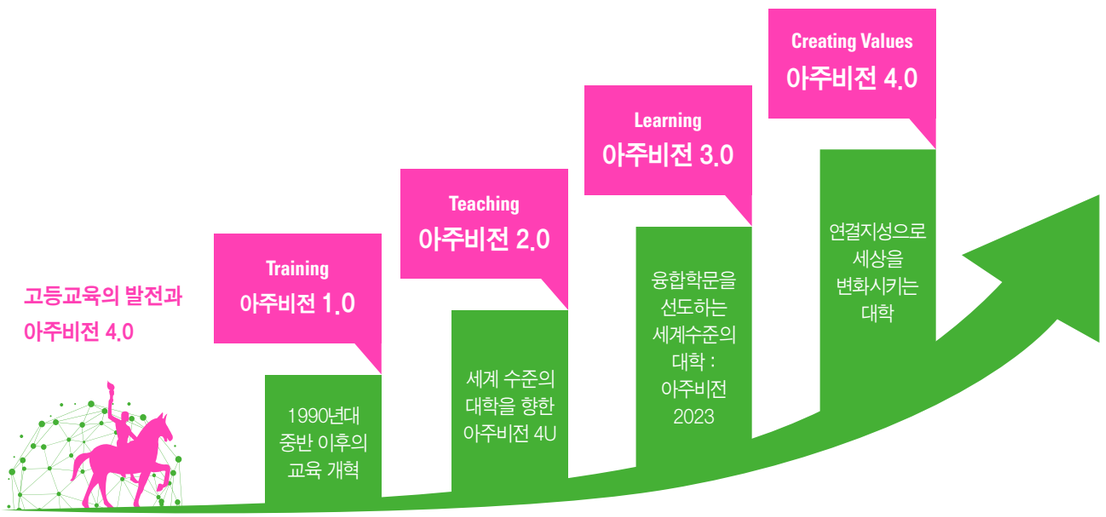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아주비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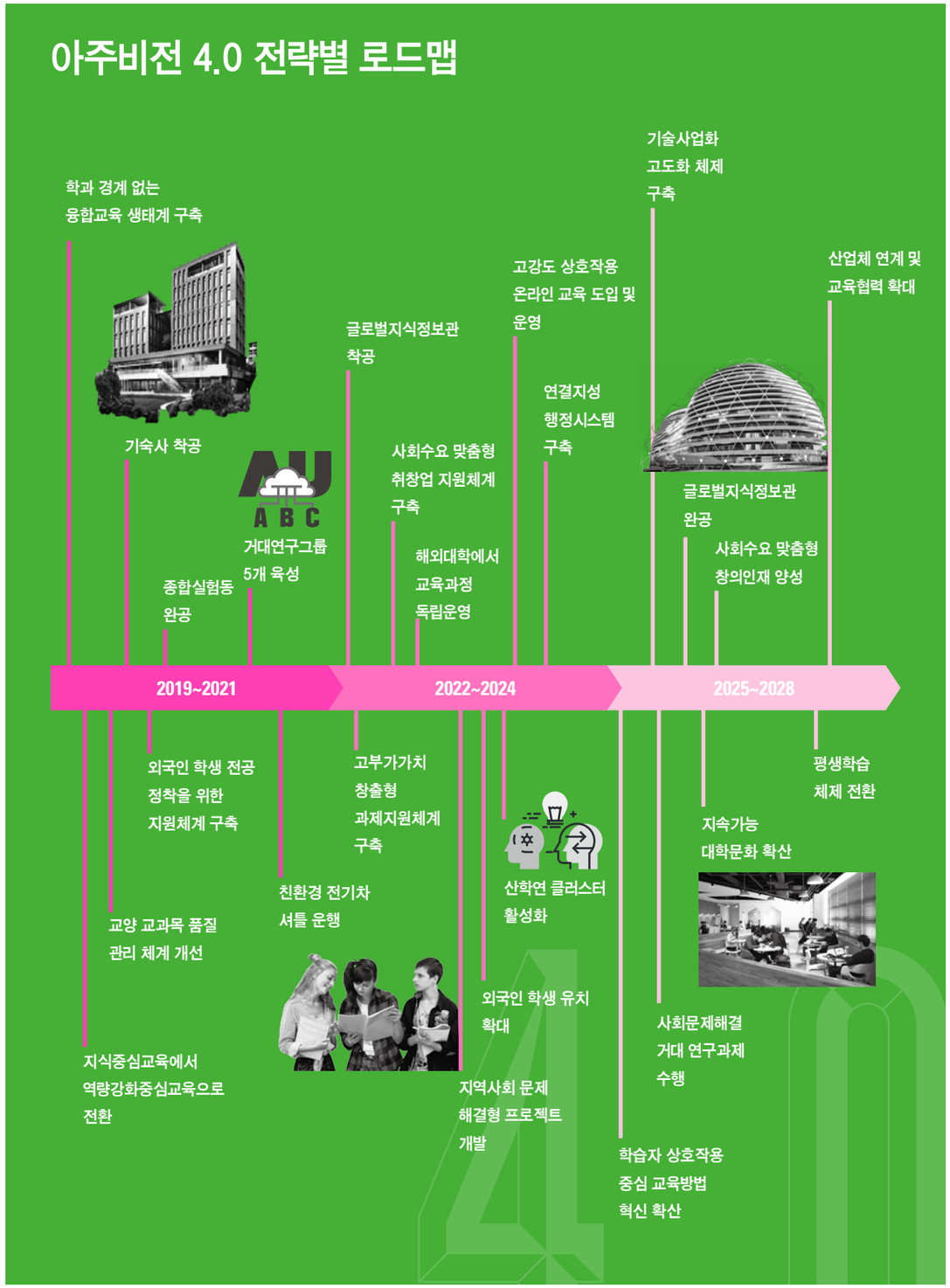
'대학을 바꾸는 대학'으로 우리 사회와 대학가에 울림을 주어 온 아주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캠퍼스 문화 등에 대한 지향과 다짐을 담은 것, 아주대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아주비전 4.0의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정리 이솔 커뮤니케이션팀

왜 4.0인가?

고등교육 발전은 그동안 단순한 훈련(Training)에서 가르침(Teaching), 그리고 배움(Learning)으로 변화해왔다. 아주대는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이 이제는 단순한 '배움'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는(Creating Values)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이번 아주비전 4.0에 담았다.





AJOU VISION 4.0

아주비전 4.0 5대 전략

1 연결지성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

2 자기주도형 Hi-interactive 교육혁신

3 High-impact 연구 허브 구축

4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5 공유가치 창출 오픈캠퍼스 실현

01 연결지성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

- 50주년기념관(가칭 글로벌지식정보관) 건립
- 기숙사 신축
- 대학문화의 지역사회 공유
- 캠퍼스 재생사업
- 친환경 전기차 셔틀 운행

02 자기주도형 Hi-interactive 교육혁신

- 학생 주도 교육과정 확대
- 파란학기 Extreme
- Active & Adaptive Learning 확산
- 공유 가능한 첨단 교육 환경 구축
- 신입생·유학생 정착 프로그램 및 Academic Advisor 운영

03 High-impact 연구허브 구축

- 거대 연구그룹 발굴 및 지원
- 신임교원 도약연구 지원
- 질적평가 기반 연구지원제도 수립
- 고부가가치 창출형 원천기술 발굴 및 지원
- 대학원 특성화 및 우수 대학원생 확보

04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 사회수요 맞춤형 취업교육·지원체계
- 지역산업 클러스터 연계 공동연구거점 구축
- 실전체험형 도전 창의 교육
- 중소기업 기술 허브 구축 및 네트워킹
- 산학일체형 상생파트너십 실현

05 공유가치 창출 오픈캠퍼스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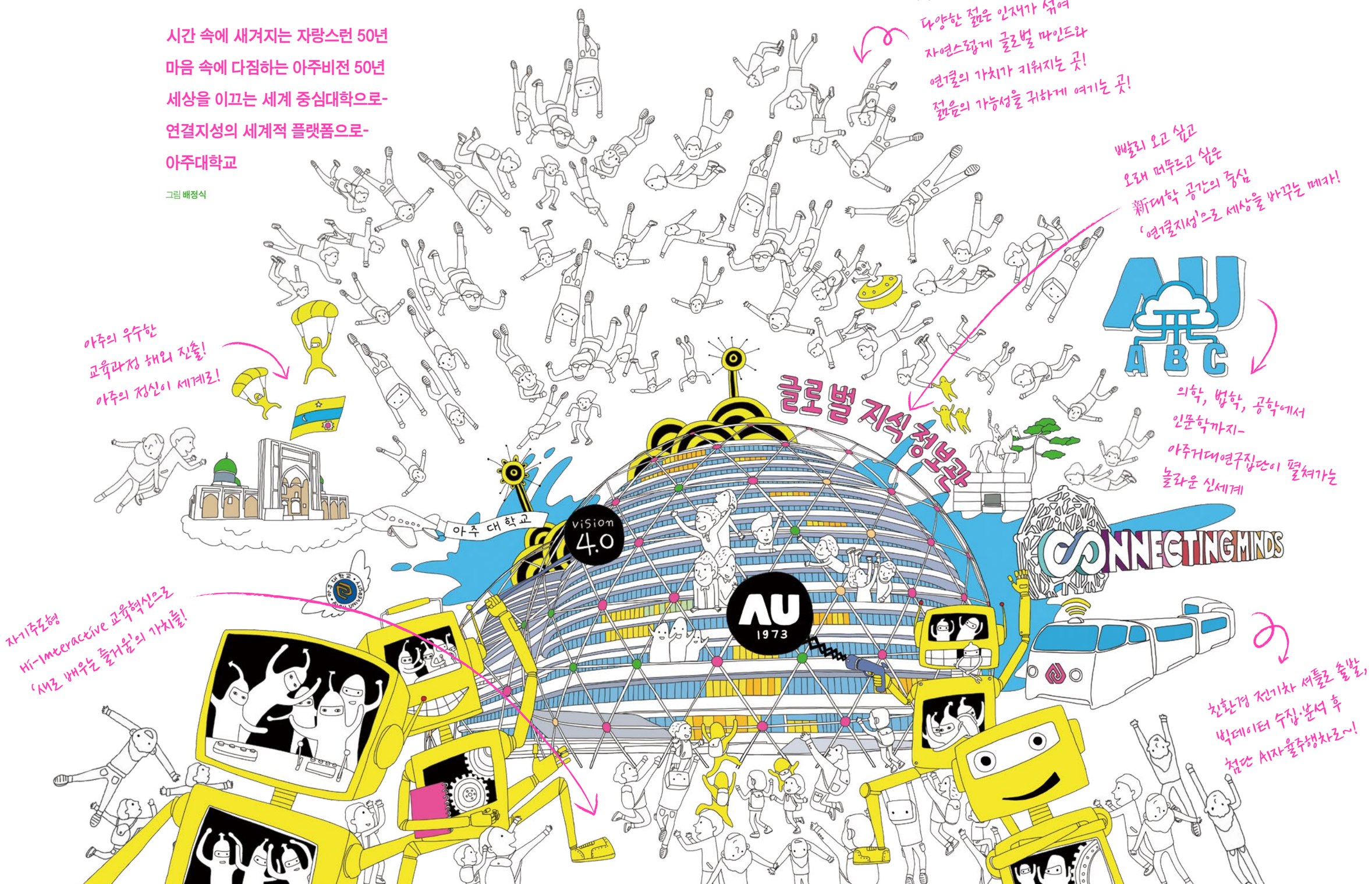
- 외국인 학생 유치활동 강화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
- 외국인 학생 특화 전공 개설
- 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개편
- 나노학위 과정 도입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아주의 미래를 미리 가본다

시간 속에 새겨지는 자랑스런 50년
마음 속에 다짐하는 아주비전 50년
세상을 이끄는 세계 중심대학으로-
연결지성의 세계적 플랫폼으로-
아주대학교

그림 배정식



특집 대담

"미래 교육을 말하다, 아주비전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필요한가?"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전문적인 일들이 인공지능의 역할로 대체되리라는 예측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자 이 같은 의문이 튀어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문교육의 꽃'이었던 대학의 역할이 시들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이 가운데 아주대학교는 '연결'의 가치에 집중하며 '아주비전 4.0'을 선포했다. 대학은 세상과 상호작용해야 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성을 연결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지난 3월26일, 대학을 향한 의문들에 대한 답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박형주 총장과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만났다. 이 시대 두 리더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진행 **남경호**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글 **박예슬**
사진 **우정훈**

아주대가 '연결 지성'의 가치를 담아, 오랜 숙의와 논의 끝에 아주비전 4.0을 선포한다. 대학을 둘러싼 어떤 문제(Problem)와 해결(Solution)을 담았는가?

박형주 요즘은 대학 교육 말고도 지식과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대학은 새롭게 등장한 선택지들에는 없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은 사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기관이며 새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기관'이라는 의미의 전통적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대학의 생산성을 논문 수 등 양적방법으로 측정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상호작용'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연구는 사회에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세상과 대학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는 이를테면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가치에 중점을 뒀다. ▲교육의 혁신과 상호작용 ▲연구의 혁신 ▲산학협력 ▲개방성 ▲문화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개방성'은 '세계화'를 포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주대는 개방성에 인색했다. 교내에도 아직 국내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더 여러 문화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야 한다.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 대학은 재미있는 곳이어야 하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고 싶지 않은 곳이 돼야 한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뭔가가 나온다.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거나 다른 재미있는 곳을 찾아 떠난다. 그러면 대학은 단순한 지식전수기관에 그치게 된다.

윤 차관께서는 IT 대기업과 '미래 창조' 개념을 강조하며 정부를 이끌어 오시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시대적 역할을 말씀해 달라.

윤종록 '상상력'으로 '혁신'을 만들 줄 아는 대학이 돼야 한다. 그간 우리에게는 '발로 딛고 있는' 지구만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발로 딛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지구, 이른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료를 넣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위주에서 혁신 경제의 시대로 넘어온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대학을 살펴보겠다.

과거 대학은 눈에 보이는 지구의 산업 안에서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이 보이지 않는 지구에서 상상력을 원료 삼아 거대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미국 기업인 피터 틸(Peter Thiel)은 저서 〈제로 투 원〉에서, "x축은 1을 n으로 만드는 축"이라고 했다. 누군가 '1'을 만들면 이를 빨리 분해하고 복사해 'n'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드니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런데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두 배 이상 많이 팔렸다. 우리는 그간 1을 n으로 만들기를 너무나 잘 해 왔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x축, 1을 n으로 만드는 경제의 시대에서 y축, 0을 1로 만드는 경제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주장한다. 0은 말 그대로 아직 없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갇혀있는 한 아직 0이다. 이를 끄집어내 '혁신'으로 만들었을 때 1이 된다. 이렇듯 상상력으로 혁신을 만들 줄 아는 대학이 앞으로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인구가 고작 530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국립대학이 어느덧 각종 대학 평가 순위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게 됐다.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세계 인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학이 최고가 된다. 싱가포르의 난양이공대학만 하더라도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계적 석학들을 모셔 온다. 국가가 세계화에 힘썼기에 자국 대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상상력으로 혁신을 만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전수기관'으로써의 대학'이 끝났고, '패스트 팔로워'로써의 기업도 끝나간다는 지적이신데, 그렇다면 현재 대학에 몸담은 젊은이들에게 대학이 구체적으로 뭘 제공해야 하나?

박형주 상상력으로 혁신을 만들려면 대학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며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중 반 이상은 본인의 전공이 아닌 분야로 진출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대학 교육을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여겼지만, 이 같은 생각이 지금도 타당한지 의심하게 된다.

이제 자기가 공부한 분야와 전혀 다른 영역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하는 세상이다. 전문가를 길러내는 역할은 대학원에 넘겨주고 대학은 어느 분야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추상적인 생각으로 끝나서 될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학생이 다른 전공 수업을 듣게 되면 손해를 본다. 필요한 학점을 받지 못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식이다. 또 아주 전문성이 높은 분야의 전공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받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 손해가 없게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다.

SPECIAL

AJOU VISION 4.0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CONNECTING MINDS

대학은 학생들이 좀 더 용감하게 '혁신'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해결'을 제공해야 한다.

젊음의 창의성이 제도에 의한 혁신으로 빛을 보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도 이제 대학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박형주 총장

이렇듯 다른 전공 수업을 들어도 불이익이 없게끔 제도를 바꿔주면 학생들이 용감하게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대학은 슬로건을 '커넥팅 마인즈(Connecting Minds)'로 정했다. '경계를 넘는 교육'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연결'을 강조한 것이다. 대학에는 다양한 전공, 학과, 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정신들을 연결하는 곳이 대학이다. 여기서 혁신과 파격이 일어난다. 어떤 분야에서 굉장한 난제(難題)가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얼마 전 미디어학과와 문화콘텐츠학과를 방문해 교수들의 발표를 들었다. 두 학과 모두 서로 닮은 과목이 많은데다 지향점도 비슷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학과는 인문대학 소속이고 미디어학과는 정보통신대학 소속이라 과목들이 분리돼 있었다. 몇몇 과목들을 양측 학생들이 같이 들을 수 있게 하면 각 과 교수들도 보다 다양한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한 쪽은 이과고, 다른 한 쪽은 문과라는 점이었다. 이과 학생들이 문과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손해 보게 된다. 교수들은 자기 제자를 손해 보게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과목을 새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가 섞이고 연결돼야 학생들의 '마인드'가 바뀐다는 것을 교수님들도 알지만 정작 실행할 수 없는 환경이다. 0과 1 사이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이제 우리는 혁신이 일어나기 쉬운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윤 차관께선 여러 강연에서도 '이스라엘의 창의성'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의 예를 강조해 오셨다.

윤종록 학생이 자신만의 역량을 찾을 때까지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대학이다. 앞서 박 총장께서 서로가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동차의 속도'로 예를 들어보겠다. 자동차가 속도를 내려면 우선 엔진이 튼튼해야 하고, 차체가 가벼워야 한다. 타이어에 바람도 충분해야 한다. 또 길이 잘 닦여 있어야 한다. 이것으로 다가 아니다. 신호체계가 물 흐르듯 연결돼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에서는 이 다섯 가지의 '합'이 아닌 '곱'으로 자동차의 속도가 결정된다. 네 가지는 1이고 한 가지가 0이면 자동차의 속도는 0이다. 차라리 다섯 가지가 모두 0.5인 것이 낫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활동하게 될 세상은 어느 한 영역, 혼자만의 역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러 영역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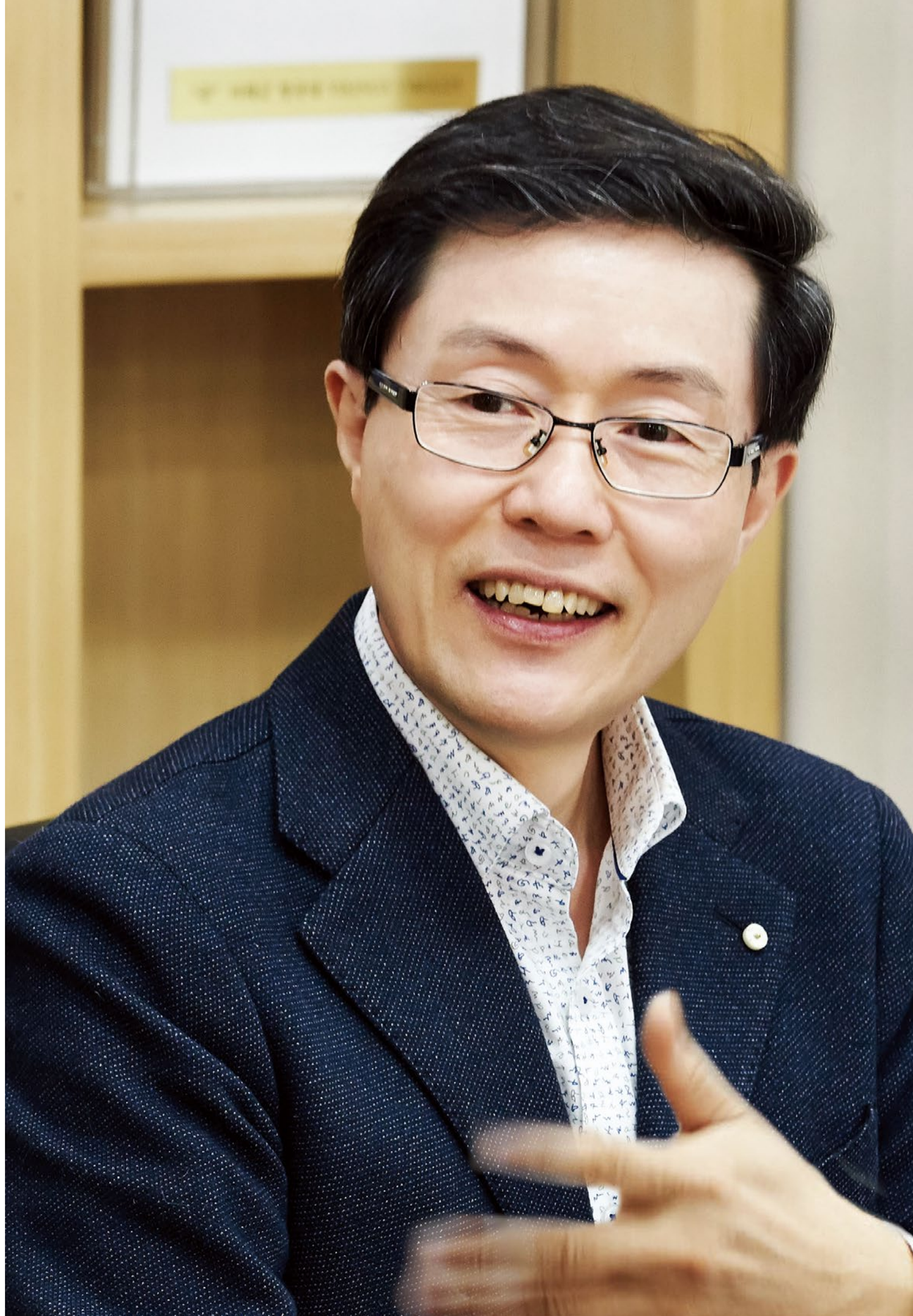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도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딸 말리아는 하버드대학에 합격하고 바로 진학하지 않았다고 한다. 1년간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입학했다. 그걸 '갭 이어(Gap Year)'라고 한다. 이스라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에 입대한다. 군복무를 마치면 1년 반 정도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여행을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약 5년 뒤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 학생들은 5년간 군복무와 여행을 통해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애쓰게끔 놔두지 않는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뒤 공부하게 한다. '이스라엘판 갭 이어'다.

나는 '갭 이어'가 '인생의 작전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원과 집만 오가다 대학에 입학한다. 대학에서 보내는 4년마저도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린다. 이제 인생의 작전타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스라엘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누구나 졸업 뒤 1년 반 정도 해외여행을 떠나 현장에서 외국어를 익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어장벽이 없다. 전 세계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넓이라고 치면, 감독이 앉아있는 벤치 정도의 면적이 우리나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그라운드로 직접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갭 이어를 통해 언어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꼭 4년 만에 졸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대학에 머물 수도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렸다.
나라가 한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했다. '후츠파'의 소프트파워가 한 것이다.**

**안가 본 길 가는 게 젊음이다. 세상과 '맞짱'뜨라.
형식은 더 부수고, 사고는 더 자유로워야 한다.**

윤종록 전 차관



총장께선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멀티플레이어'를 키워야 미래를 자신 있게 맞이하는 젊은이를 배출할 수 있다고 짚어 오셨는데…

박형주 무척 공감한다. 대학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대학에서 어떤 것에 몰입하는 자신만의 경험이 필요한데, 이미 설계된 과정 안에서 이뤄질 필요는 없다. '내 전공 안에서 필요한 과정만 이수해 대학 졸업장을 얻은 뒤 인생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저서 <퓨처 쇼크>에서 "미래의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은 몰입의 경험을 하게끔 돕고 필요할 때 '배우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자신의 관심 영역을 찾고 그 안에서 몰입해 본 사람은 다른 새로운 분야를 접해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지식의 양으로만 승부하면 취업에 성공해도 기업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또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은 시대다. 예전의 학교는 단순한 지식전수기관이었다. 이제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몰입의 경험을 하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껴봐야 한다. 대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학생들을 도와줘야 한다. 윤 전 차관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갭 이어'는 이스라엘에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이들이 대학에 가서 새로운 것을 접한다면 두려움도 적게 느낄 것 아닌가. 제도의 변화를 기성세대가 고민해야 하겠다.

대학의 이런 준비가 옳다면,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과 학부모, 지도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윤종록 학부모와 고등학교 교사들이 5~10년 후 미래를 상상하며 아이들을 지도했으면 좋겠다. 요즘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최고'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디지털 시대'가 유지될 수 있을까. ICT가 없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역흑자 957억달러 중 955억달러를 ICT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480억달러가 중국에서 낸 흑자다. 그런데 지금 메모리반도체 하나를 제외하고, 중국이 2018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같거나 앞서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던 ICT산업 점유율이 중국에서 절반으로 뚝 떨어질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까?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ICT 일변도에서 벗어나 '라이프 사이언스'에 눈 돌려야 한다. 라이프 사이언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품이다. 전 세계 '푸드 밸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는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 바게닝겐이라는 도시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푸드밸리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바게닝겐대학이 있다. 바게닝겐대학은 전 세계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전 세계 ICT 시장이 4조달러다. 우리나라가 그중 8%를 차지해 성과를 냈다. 그런데 푸드 인더스트리는 그것의 두 배, 8조달러다. 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5%다. 이를 10배, 5%로 올려야 한다. 바게닝겐대학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게닝겐대학은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부르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U&R 즉 '유니버시티 앤드 리서치(university & research)'라고 부르는 대학이 바게닝겐이다. 쉽게 얘기하면 네덜란드에 있는 농업 생명과학대학을 한 군데 모아 우리나라로 치면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원, 국립종자연구원 등을 다 묶어 대학을 만든 것이다. 그 대학 하나가 우리나라 농업 수출의 15배, 전 세계 농업 수출 2위 국가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우리가 5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와 같은 공식이 아닌 라이프 사이언스, 네덜란드 바게닝겐대학 쪽으로 사

고를 전환해야 한다. 의료, 제약, 식품, 이 세 가지를 라이프 사이언스의 대표 주자라 할 때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헤게모니를 잡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꼭 특정 인기 학과, 인기 대학만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을 갔으면 한다. 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필요하면 해외에 있는 최고의 교수들을 소개받아 그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같은 맥락하에 '제도적 해결의 제공처'로 대학 혁신을 리드하는 총장으로서 구체적 조언은?

박형주 '지금 사람들이 몰리니 나도 저걸 해야겠다'라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의 의대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매우 빠르게 의학에 도입되고 있어, 인간 의사의 역할이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10년 뒤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중·고등학생이라면, '생각 연습'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생각의 연습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다 통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학교에는 자율학기제라는 것이 있다. 자율학기에 학생들이 무얼 하는지 선생님들께 물었더니 가장 많이 하는 게 떡 만들기, 네일아트라고 한다. 할 때는 재미있겠지만, 미래 설계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시간에 본인의 미래와 관련 있는 교육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를 가르친다든지. 인포그래픽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이다. 무엇보다 자기 생각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었으면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다. 독서는 편식해선 안 된다. 잡독해야 한다. 어떤 분야에 대해 고민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키워드를 알고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연결 지성'으로 세상을 바꾸어 갈 아주대생들에게 교육자와 인생 선배로서 주시는 당부 말씀이 있다면…

윤종록 오늘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는 책 한 권을 준비했다.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다. 7년 전, 89세의 그를 만났다. 그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었다. 그분이 내게 질문을 했다. "기억의 반대는 뭔가?" 나는 "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근데 그분이 "자네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기억은 내가 이미 걸어가 본 길을 되돌아가는 것, 상상은 내가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덧붙여 그는 "나는 자원이라고는 없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서 젊은이들이 세 가지를 상상하기를 주문한다. 첫 번째 x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두 번째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세 번째 z축, 저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하라"고 했다.

이건 페레스 대통령이 내게 남긴 유훈과도 같다. 바로 엊그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달착륙선을 발사했다. 4월11일 도착 예정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1969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원샷에 우주로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다.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바로. 심지어 국가에서 쏘아올린 게 아니라 테크니온공대에서 쏘아올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대 학생들이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상상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모든 혁신은 상상력에서부터 나온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에서 강한 자는 하드파워가 강한 자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소프트파워다. 소프트파워가 강해지려면 과거의 기억보다는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상상'이 필요하다. 아주대학교에게도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학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의미 있을 것 같다.

소프트파워를 강하게 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이스라엘의 국민성이라는 '후츠파(Chutzpah) 정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이 25% 가까이 된다. 유대인이 우리보다 아이큐가 높은 줄 알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큐가 높은 나라들 중 하나다. 아이큐로 따지면 우리는 106mm 총알이고 유대인은 96mm 총알을 지녔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한들 무엇하나? 방아쇠를 당겨줘야 한다. 방아쇠를 당기는 힘은 뭘까. 유대인들의 국민성, 후츠파는 한마디로 위아래 구분 없이 '맞짱 뜨는' 것이다. 후츠파 안에는 7가지 의미가 담겼는데, 1번이 'Informality', 즉 형식 타파다. 이 나라에는 'Excuse me'라는 말이 없다. 그 정도로 뻔뻔하고 당돌하게 맞짱 뜨는 문화다. 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닮을 필요가 있다. 사고의 자유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과감하게 미래를 상상하는 힘을 키우라고 권하고 싶다. 아주대가 다른 어떤 대학보다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가 강한 학생을 키우려면 유대인처럼 저돌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힘, 후츠파 정신을 가르치라 하고 싶다.

'아주대 학생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조용한 편이다'라는 평이 있다.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다른 발자취를 보이는 동문들이 많다. 이 현상을 '진짜를 다지는 학풍'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괴짜'들의 집합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총장으로서 보는 아주대의 '후츠파' 정신을 말씀해 달라.

박형주 최근 아주대학은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분야를 잘 할 수 있을까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자 분들이 있었다. 그 분들에게 어떤 분들과 협력하느냐 물었더니 기계과 교수님이, 최근 로스쿨의 법률가들과 협업 중이라 했다. 알고리즘을 만들 때, 법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의사와도 의견을 나눈다고 했다. 의사들이 언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듯 이제는 정말 엉뚱한 데서 영향과 도움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과학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엄청난 소통가여야 한다. 그것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앞으로는 연결의 시대이기에, 아주대에서는 연결 정신이 문화의 한 코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주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면은 안 가본 길을 택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국종 교수가 있다. 그 분은 전통적인 의사의 길 대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다. 그 결과로 외상 치료 전문가가 되었고 본인만의 영역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가수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가 아주대 동문(윤석준, 건축 97)이다. 의료 빅데이터 부문 최초 전문가인 박래웅 교수(의학 89)도 아주대 동문이다. 아주대는 그렇게 좀 삐딱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다. 남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점이 바로 아주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주대학은 좀 삐딱한 사람들을 배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앞으로 아주대의 코드가 됐으면 좋겠다.

박형주 총장은…

'수학의 대중화'에 앞장 서온 수학자로, 미국 U.C.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클랜드대학교 수학과 교수,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수학과 주임교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아주대학교 수학과 석좌교수를 거쳐 아주대학교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저서로는 〈수학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 〈기원THE ORIGINE(공저)〉, 〈내가 사랑한 수학자들〉이 있다.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해 유대인 창의력의 원천인 '후츠파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기술고등고시를 거쳐 KT상임이사 부사장(R&D, 마케팅, E-BIZ, 신사업), 벨연구소 특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했다. 정부와 KT에서 우리나라 통신망 현대화를 직접 기획하고 집행했다.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후츠파로 일어서라〉, 〈호모디지쿠스로 진화하라〉 등이 있다.

SPECIAL

AJOU VISION 4.0

연결지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나는 길게, 우리는 넓게

빌려온 지식보다는, 마음은 같은 것이다. 나와 사회의 들일이면, 우리가 세계에 연결됩니다. 가치, 미래를 바꾸는 대학으로 연결지성으로 미래를 미리 만들어 가자!

A J O U U N I V B O O K N E W S

아주의 BOOK소리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여러 인기 TV 프로그램과 강연의 명강사로 활약하며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과 혜안을 명쾌하게 풀어내온 아주대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사회과학과 대중문화, 기업과 대학, 대학생부터 학부모·CEO까지 분야와 공간,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얻을 만큼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김 교수지만 그가 처음부터 학문에 뜻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아홉 살 때부터 테니스 라켓을 들고 온종일 운동에만 몰두했던 김경일 교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돼서야 운동장을 벗어나 펜을 잡았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대학에 무난하게 합격했다. 뛰어난 머리를 타고난 것일까? '공부의 신'처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던 걸까? "평범한 머리와 약간의 노력만으로 낸 성과"였음을 강조하는 김경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진행 **이솔** 커뮤니케이션팀
정리 **박예슬**
사진 **김성재**

"'삐끼'가 될 뻔 했죠~!"

〈십대를 위한 공부사전〉 펴낸 김경일 교수 인터뷰

최근 〈십대를 위한 공부사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십대의 공부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듣고 싶다.

운동을 하다 그만두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교실에 들어갔다. 운동할 때는 교실에 잠깐씩 머물렀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제야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번 아웃(burn out)' 상태라는 점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반만 알고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배우긴 했지만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 한데 나는 운동을 하다 공부를 막 시작한 상태로, 공부에 관한 한 나쁜 습관이랄 것이 없었다. 습관이란 게 아예 없었으니까. 습관은 절대 고칠 수 없다. 심리학이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다. 나쁜 습관은 노력이 낼 수 있는 효과를 거의 삼켜버린다. 때문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좋은 습관으로 덮어쓰는 방법밖에 없다. 모든 늦깎이들의 장점 중 하나가 나쁜 습관이 없다는 것이고, 그 덕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재능과 노력만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능력'보다 '상황'이다.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책에도 '노력'하라고 쓰지 않았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싫어하는 말이 바로 노력하라, 몰입하라 류의 말이다. 공부와 일 모두 마찬가지다. '몰입할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를 집어넣어야 한다. 창의력이 샘솟는 공간,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다. 사소한 상황의 변화가 이를 가능케 한다.

신간 내용 중, 다양한 직접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이에 대해 아주대 학생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다른 색을 많이 봐야 자기 색깔이 보인다. 집과 학교만 오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롤 모델을 찾을 수가 없다.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은 위인이지 '멋있는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은 내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은 사람 중에 있다. 가까이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주 접촉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접촉의 빈도를 높였으면 한다.

수많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우리 아주대 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 평가는 "공부 잘하고 착하다" 혹은 "일 잘하고 착하다"다. '필살기'가 부족한 거다.

싸가지 없는 학생들, 되바라진 학생들을 좋아한다. 대학은 예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대학이다. 도발도 하고 깨져도 봐야 한다. 상투적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경험에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물을 지긋이 보고 있다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성철스님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사물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진다. 경험 쌓기를 무슨 공부처럼 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롤 모델이 생긴다. 여기서 회피동기와 접근동기도 나온다.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vs 석박사 시절의 공부는 엄연히 다른데.

많이 다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에는 '극단적 회피동기'가 크게 작용했다. 나와 같이 운동을 하던 선배들을 돌아보니 대부분 나이트 '삐끼'를 하고 있었다. '도저히 저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런 생활은 못 하겠다, 진짜 저 꼴만은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회피동기는 순간적으로 매우 강한 에너지를 내게 해준다.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접근동기'가 필요하다. 내게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접근동기였다. 주변의 누가 제일 멋있었는가 하면,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이 멋있었다. 기업 총수나 국회의원보다 선생님, 교수님이 멋져 보였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깨달음은 그 뒤에 따라왔다. 학생들에게도 "네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조언한다. 검사가 멋져 보여서 검사를 하면, 직업윤리는 절로 따라온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검사를 하면, '검사질'을 하게 되기 쉽다.

멋져보여서 하는 일에는 '동기'와 '윤리'가 절로 따른다

입에 '풀칠'은 시켜줘야지… 그래야 '적성'에 뛰어든다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 우리 교육 체계에도 이를 이용한 교수법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메타인지'는 자신을 보는 능력이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든 교수든 중고교 선생님이든 기업 임원이든, 질문을 잘 안 한다. 질문을 안 하는 분위기가 왜 만들어질까? 교수자들이 "자, 다 이해했지?"라고 묻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넛지(nudge)' 즉 부드럽게 개입하면서 사람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주로 관심이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질문법을 살짝 바꾸면 된다. 질문 자체를 "내가 오늘 이야기를 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이상한가?" 혹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로 바꿔보면 된다. 이해의 책임은 교수자가 져야 하는 거다. 수업, 회의 모두 마찬가지다. "확실하지? 알아들었지?"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이야기한 거니?"가 되면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한다.

내용을 극단적으로 다른 분량으로 소화해 보는 것도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짧게 줄일수록 어려운 말을 쉽게 표현해야 하고, 분량을 늘릴수록 구체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같은 내용을 2분, 5분, 30분의 분량으로 바꾸어 보면 사용되는 언어 자체도 완전 달라진다. 그러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유치원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1분 분량으로 설명하라고 한다. 그게 가능한 친구면 논문을 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교수자들도 이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한 학기 강의 분량을 2주로, 1시간으로 바꾸어 보고, 청중도 자주 바꾸어 보면 스스로의 지식체계에 얼마나 빈틈이 많은지를 절로 알게 된다. 유태인 교육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다. 우려와 달리 우리 교육이 많이 바뀌었다. 중고교 교육이 많은 고민 끝에 개선된 데 비해 아직 대학의 고민은 부족한 편이다.

스스로의 적성을 찾아 헤매며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검사가 '적성검사'다. 30대 초반까지 자기 적성을 찾으면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적성'을 어떻게 찾나? 인류의 대부분은 자기 적성을 모르고 죽는다. 적성이 나한테 올 때까지 경험을 통해 부딪쳐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 보도록 돕기 위해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젊은이들은 더 불안해져서 자기 적성과 무관한 일들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생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서게 된다.

쌓이는 스펙 때문에 오히려 취업 안 되는 시대

잘 '놀'면서 '나만의 필살기' 있는 사람 찾는 곳으로 가자

개인의 관점에서는 '내 적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젠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시간관념이 뒤로 당겨진다. 위로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다. 나 역시도 정말 잘 하는 일을 40대 중반에야 겨우 안 것 같다. 덧붙이자면, 적성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 봐야 한다. 적성은 행위다. 나의 경우 '가르치는' 행위가 너무 좋다. 바로 이 행위가 적성이다. 돌아다니는, 파는, 분석하는- 과 같은 동사로 좇아가면 내 적성이 나온다.

이제 막 사회에 나선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점은 '취업'을 '입시'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다.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경력직 직원을 많이 뽑는다. 95% 이상 신입 대졸 공채로 직원을 뽑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50% 이상을 경력 직원으로 충원한다. 시장은 의외로 탄력적이다. 이를 '탄력적 시장'이라고 보느냐 '막막한 현실'이라고 보는가는 '내가 얼마나 불안한가'에 달려 있다.

불안감이 커지면 학점과 영어점수, 스펙에 미친 듯 몰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기업들이 뽑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간다. 국가대표급 스펙을 가졌는데도 취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만 가지고 있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다. '자신만의 색깔'이라는 필살기가 없이 그저 스코어 관리만 되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회사는 수준이 낮은 회사다. 내 색깔, 필살기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재구성해 봐야 한다.

리그가 워낙 다양해졌다. 스타트업에 입사하기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겼으면 좋겠다. 기업군 간 이직이 수월하고 상당한 역동성이 존재한다.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며 '안정'에만 매몰되는 것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짓이다. 20~30대에 겪는 혼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불안을 잠재워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자주 "나도 애야. 40대, 50대가 되어도 그렇게 느낀다. 그런 정도니 20대는 아직 미토콘드리아 수준이고, 앞으로 20년은 더 아이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해준다.

28세까지는 취직을 해야지, 30세까지는 결혼을 해야지 하는 '언제까지 무얼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은 하루를 계획할 때나 하는 것이다. 오늘 4시까지 수학공부를 해야지-라고. '어른스러움'을 강요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성장을 못 한다. 자기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검증할 기회도 없이 9급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다. 스스로의 잠재력과 무관하게 '무엇을 이뤄야한다'라는 타임라인이 너무 당겨져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서다. '잘 노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잘 논다'라는 이야기는 '그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다. 잘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잘 해낸다. 나는 아직 완성된 어른이 아님을 인정해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경일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트 마크먼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판단, 의사 결정,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했다. 대학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이나 TV에서 강연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전문가를 위한 한국형 심리부검(공저)〉〈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지혜의 심리학〉〈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십대를 위한 공부사전〉 등이 있다.

Global Internship

"글로벌인턴십으로 나의 능력을 의심치 않게 됐어요!"

안나 루이자 알버런 Ana Luisa Albarran / 국제대학원

아주대학교에는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특히 '글로벌 인턴십'은 해외 기업에서의 현장 경험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한 달에서 일 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문화와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미국·베트남·헝가리 등에서 글로벌 인턴십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해당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아주대 국제대학원 국제교류학 석사과정에 있는 멕시코 출신 안나 루이자 알버런(Ana Luisa Albarran) 학생도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했다. 안나 학생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에 파견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했다.

안나 학생은 "글로벌 인턴십은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며 개인의 성장과 직업적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기회를 살리려면 해당 회사·기관이 어떤 곳인지, 자신이 그곳에 맞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 조언했다. 이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보다는 '조직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주대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Global Citize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환학생 ▲복수학위제 ▲파란사다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꾸준히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Global Internship

글로벌 인턴십

아주의 정신을 세계로, 세계의 지혜를 아주로!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 H마트(미주 최대 아시안 마트), KOTRA,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와 같은 기관과 연계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방학 기간을 이용한 단기 인턴십부터 최대 1년 간 근무하는 중 장기 인턴십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파견 국가와 기업, 직무가 다채로워 참가자 선발도 상시로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 : 국제교류팀(031-219-3521)

펠컨 9가 우주로 날았다 그 순간 내 꿈도 솟았다

이인표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8

'Connecting Minds - 연결된 세상, 협력하는 지성' 이라는 아주대의 슬로건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과 다짐이 녹아있다. 개별적 존재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연결, 그리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세상에 대한 기여가 바로 그것이다. 〈아주인사이트〉는 이 같은 생각을 담아 '따로, 같이'라는 새 코너를 마련했다. 그 첫 주인공으로 미국 올랜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가슴 벅찬 로켓 발사 장면을 보고 돌아온 이인표 학생(국방디지털융합학과 18)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세상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찾는 사람들의 힘으로 진보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박예슬

이인표 학생이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도전 덕분이었다. 우연히 조선일보의 〈청년 미래탐험대100〉이라는 프로젝트를 알게 된 것. 이는 조선일보가 20대 청년 100명을 뽑아 세계 각지로 파견하는 연중기획 프로젝트로, 탐험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 기획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를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다시 발사된 '옛 꿈'

"이 프로젝트에 참가 신청을 했고, 제가 '미래탐험대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민간 우주개발 경쟁이 한창인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방문하게 됐어요.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건설한 로켓 발사기지로, 아폴로 계획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우주왕복선 익스플로러(Explorer) 같은 대형 우주선을 발사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민간기업 스페이스 X의 재사용 로켓 '팰컨 9' 발사 장면을 관람했습니다"

세상은 익숙해진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찾는 사람들의 힘으로 진보하죠

우주 2번 다녀온 前 NASA 대원 "젊은이, 지구는 한없이 작다네"

이인표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묵직하고 커다란 몸체에 '최첨단'이라는 이미지로 무장된 비행기를 동경했다. 본래 공군사관학교 진학이 목표였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흉(氣胸)에 걸려 포기해야 했다. 잠시 방황의 시기를 거쳤던 그는 2015년 신설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를 알게 되었고, 곧 아주대에서 미래를 설계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더 높아진 우주를 향한 목표

"졸업 후 공군에서 기술 장교로 7년간 복무한 뒤 국방·안보산업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연구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위해 우주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 군(軍) 관련 항공우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다가가기 위해 착실히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로 읽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 중이다. 연구를 하려면 외국의 최신 논문을 수월히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대의 국제학생대사 AGA(Ajou Global Ambassador)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의사소통·독해 능력을 쌓아 가고 있다.

로켓 '팰컨 9'가 발사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남다른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세상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찾는 사람들의 힘으로 진보한다'는 것이다. 좁은 시야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바로 성과를 내고자 했던 그에게는 새로운 자각이었다.

"'팰컨 9' 발사 장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우주를 향한 탐험 정신과 집념이 부럽고, 막연해 보였던 우주여행 보편화나 2030년으로 예정된 NASA의 화성유인 탐사가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생각의 크기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날의 경험으로 미래에 대해 보다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된 이인표 학생. 그의 말대로 생각의 크기를 키워 나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스스로 찾은 답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주BOOK通'이 넓혀준 비전

"눈앞에 취업 관련 문제집과 과제가 쌓여있는데 당장 이를 넘어서 크게 사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학업·취업 준비를 우선 계획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식이죠. 저는 교내 프로그램 '아주북통(Book + 通)'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주북통' 덕분에 제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의 책을 읽고, 이에 대해 타 학과 학생들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어요. 또한 생각의 넓이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생각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여건상 그럴 수 없다면 책으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괴짜 같은 진짜 CREATIVE

YIDAEAM

YI-SWAN C/2009-F6 / minor planet 7602-Yidaeam

"인생을
다바쳐도
아깝지않은것
자기의 주머니 안을
뒤적이면 나오죠"

산공 75 / 영월곤충박물관장 **이대암**

이대암 관장의 도전은 끝이 없다. 아주대 공업경영학과(현 산업공학과) 75학번인 이 관장은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아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대학 교수로 일했다. 곤충에 대한 깊은 관심은 영월곤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생물학 박사학위를 마쳤고, 곧이어 천문학 박사학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한국 최초로 혜성과 신성을 발견한 끝의 학위과정으로 그는 몸이 아닌 머리로 '철인 3종 경기'급의 대장정을 완주하겠다는 각오다. 스스로의 관심과 호기심을 좇아 '한 우물 파기' 아닌 '접시 돌리기'의 삶을 살아온 이대암 관장을 〈아주인사이트〉가 만나봤다.

글 이슬 커뮤니케이션팀
사진 김성재

이대암 관장은 '곤충 박물관에서 별을 보는 건축학과 교수'다(그는 <건축과 교수가 곤충 박물관에서 별을 발견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탈고했다). 낮에는 곤충을 채집하고 밤에는 별을 보는 그는 건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아 한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쳤다. 건축을 공부해 해외 건설 현장을 누비고 강단에도 섰지만, 아주대 재학 시절은 건축에 대한 원대한 꿈을 펼 수 없었던 암흑의 시기였다.

젊은 상상력이 혁신을 만나

"건축학과가 생긴다는 홍보책자 속 글귀 하나만 믿고 프랑스 유학을 꿈꾸며 신생 아주대에 진학했다. 졸업 때까지도 건축학과는 개설되지 않았다.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어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집안 사정도 무척 어려웠다. 끼니를 굶는 게 다반사, 주머니에는 커피 한잔 값도 없었다. 문명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설움 중에도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 했던가! 배고픈 설움에 떨어지는 눈물은 유난히도 크고 무거웠다. '닭똥 같은 눈물'이 어떤 건지 생전 처음 알게 됐다. 망망대해의 쪽배 같은 시절이었다."

굶주림의 학창 시절…
절심 시간 학교 뒷산 나비를 쫓았다

원천학사의 꿈…
천문학자 제낀 '한국인 최초 혜성발견' 이뤘다

대학 교수와 부총장직도 훌훌…
다시 '괴짜의 행복' 속으로

궁핍과 현실에 영혼 맡기지 않는 삶 누리길

아주대 재학시절, 교육방송국(AEBS) 방송체에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이대암. 당시 그의 주머니에는 버스 토큰 하나 밖에 담겨 있지 않았다. 기타는 그 시절 초라한 영혼을 달래주던 힐링 도구였다. 그의 레퍼토리는 항상 빠르고 화려했다. 슬픈 곡을 연주하면 바로 울어버릴 것 같아서였다.

4교시 후, 친구들이 구내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 이 관장은 학교 뒷산으로 갔다. 굶주림의 시간을 고고하게 때우기 위해 나비를 잡았다. 원천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어느 산모퉁이에서, 나비 8마리가 평화롭게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며 엉겅퀴꽃 꿀을 빨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때 학교 뒷산에서 잡은 나비 중 하나가 40년이 흐른 지금 영월 곤충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나비는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터널이자 동결된 청춘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졸업 후 어렵게 홍익대 건축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이 또한 순탄치는 않았다. 비전공자로서 학부 3~4학년 수업과 대학원 수업을 병행하며 온갖 수모를 견뎌야했다. 대학 4년을 표류하다 드디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됐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건축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겠다는 다짐으로 임했다. '0점'의 창피를 주던 까다로운 교수에게 학기가 끝날 무렵 '최고' 평가를 받았다. 다리가 풀려 쓰러질 정도의 짜릿함이었고,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 정도의 성취감이었다. 석사를 마친 이 동문은 굴지의 설계사무소에 입사,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

"입사 일주일 만에 싱가포르 근무를 자원했다. 격주로 돌아오는 주말 휴무를 놓치지 않고 나비를 찾아 떠났다. 토요일 오후 5시 퇴근 하자마자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차를 몰았고, 10시간 넘게 달려 정글로 들어갔다. 신나게 나비를 보고 월요일 새벽 6시께 돌아와 아침 7시부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근무를 했다. 내 인생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마치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 같았다."

평탄한 직장 생활이었지만, 유학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이 서른여섯, 동료들은 다 해외 유학에서 돌아오던 때에 짐을 싸 호주로 떠났다. 택시 운전으로, 도서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해결하며 3년 만에 박사 학위를 땄다. 하루 4시간씩만 자고 주당 100시간씩 공부했다.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수도승처럼 살았다. 캥거루도 한번 못보고 귀국했다. 그래도 성과, 직책, 보상을 다 떠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즐거웠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별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힘겨운 유학생활을 버텼다.

대학의 플랫폼을

"내 인생의 1순위는 '별'이다. 건축 전에 곤충이 있었고, 곤충 전에 별이 있었다. 대학 2학년 때 기숙사 2층 침대에서 일본 책을 읽다 너무 놀라 떨어질 뻔 했다. 일본에서는 1919년에 벌써 혜성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때 다짐했다 - 내가 우리나라 최초로 혜성을 발견해야겠다고."

이대암 동문은 2009년, 각고의 노력 끝에 혜성을 발견했다. 원천학사(옛 아주 기숙사 이름)에서 한국인 최초의 혜성 발견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 지 꼬박 34년만의 일이었다. 별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 동해안 백사장의 차이를 살피는 것과 같다. 동해안 해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은 그 수가 더 많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보짓에 발견할 수 있다는 보장도 물론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발견한 별에는 그의 이름이 붙었다. 이듬해에는 신성을 발견했다. 역시 한국 최초의 일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에 별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늘의 별따기'다. 역대 대통령도 재벌 회장들도 별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천체망원경 하나를 마련하는데 20년이 걸렸고, 천문대를 갖추는데 또 10년을 허비했다."

별을 마음껏 보기 위해 그는 대학 교수직을 버렸다. 밤마다 별을 보고 아침이면 그에 대해 검색을 해야 하는데, 아침마다 학교에서 회의가 열렸다. 시간을 팔아먹고 싶지 않았다. 교수로 일한지 7년 만에 과감하게 그만뒀다. 교수라는 직업은 그에게 목적 아닌 수단이었기에, 미련은 없었다.

이대암 동문의 대학 시절은 '축적과 인고의 시간'이었다. 사막에 홀로 버려져 발가벗고 선 것과 같아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이 나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하는 순간"이라 믿으며 버텼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의 철학을 만들었다.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회는 전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획일적 시선에 아이들은 자기 결정권을 잃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철학의 부재, 부모들의 자신감 상실 탓이다. 젊은이들은 남의 주머니를 보지 말고 자기 주머니를 먼저 뒤져봐야 한다. 내 여건이 허락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밤을 새우고 인생을 다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 무엇을 찾으면 된다. 그것을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만의 시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시대에 여기 서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뒤쫓기보다 내 길을 찾아가는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정립하기 바란다."

끝으로 그는 45년 전의 자신처럼 생활고와 싸우고 있을지 모르는 후배들을 위해 덧붙였다.

"경제적 궁핍은 평생 나를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가난에게 나의 영혼을 맡긴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 때마다 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별과 나비, 그리고 음악으로 가난을 철저히 외면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결코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투쟁하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젊음이고,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주인의 DNA다."

누구나 바라는 교수 자리를 버리고 누구도 안 하는 곤충박물관에 전념키로 했다. 폐교에서 시작한 박물관이 오늘날의 규모가 되기까지, '우에서 유'를 만들어온 시간이었다.

© 영월곤충박물관

YIDAEAM

Yi-SWAN C/2009-F4 / minor planet 7602-Yidaeam

 # 이대암은?

아주대 공업경영학과(현 산업공학과) 75학번. 홍익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르네상스 건축의 음악적 유비'로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건축 및 미술사학과 대학원(GSAS)에서 불교도상학(Buddhist Iconology)을 연구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멸종 위기종인 장수하늘소의 인공증식에 성공했고, 최근 고려대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인 최초로 혜성(Yi-SWAN)과 신성(Nova)도 발견했다.

스미소니언 천체물리관측소로(SAO)부터 에드거 윌슨상을 받았으며, 국제천문연맹(IAU)은 2003년 소행성 #7602에 그의 이름을 명명하였다(Miner planet 7602 Yidaeam). 세경대학 건축디자인과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영월곤충박물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음악에도 관심이 깊어 국내 3개 음악학회가 통합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동·서 비교 음악우주론〉 특강을 펼치기도 했다.

건축, 곤충, 별을 넘나들며 '언제 이걸 다?'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남들이 담배꽁초와 소주병을 하나씩 버릴 때, 나는 하나씩 모아왔다'라고 대답하는 그는 다음 생에는 문어나 카멜레온으로 태어나고 싶다. 8개의 발을 동시에 쓰거나, 두 눈을 따로 굴리는 그들이 부러워서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그는 하루 24시간만 주어지는 지구보다는, 자전주기가 243일이나 되는 금성이 더 마음에 든다.

Ajou Location Premium
강소기업으로 가자!

형제 아주동문의 세계 향한 시선이 높은 기업 -
<(주)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

"청춘, 그 천연의 꿈을 높이 삽니다."

'좋은 회사란 무엇일까?' '나에게 맞는 업(業)은 무엇일까?' 아주인들의 진로 설정과 준비를 돕기 위해 <아주인사이트>는 강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동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해 왔다. 체계화, 관료화된 거대 공간보다, 가능성이 열려있고 속이 단단한 기업이 아주인의 마음과 도전욕에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는 천연소재를 이용한 추출물로 화장품과 식품 원료를 개발하고 있는 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의 김성현 책임을 만나봤다.

<(주)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은 자연친화적 초음파 추출 등의 기술력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세계적 화장품 기업과 브랜드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Game Changer'의 가치 아래 식품, 의약품의 세계적 원료개발 기업으로 뻗어가고 있다.

김성현 책임 / 생명공학 02

이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회사라던데…

아주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화장품 분야 회사에서 5년 정도 일했고 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과 인연이 닿아 이직했다. 국내영업팀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은 천연 소재를 이용해 만든 추출물을 개발해 공급하는 회사다. 약용 허브와 전통 한약재, 해양 소재 및 청정·희귀 소재 등의 원료에서 화장품이나 식품에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을 추출해낸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토종 원료뿐 아니라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에서 희귀한 천연 원료를 구해 자연 친화적이며 효과도 높은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있다.

'투자'와 '도감 편찬' 등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우리 회사의 장점에 대해 보고 들어 알고 있었다. 직접 경험해본 바로, 회사에서 '투자'에 인색하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직원들 개개인의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를 쌓고 알리는 일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일례로 식물 천연물에 대한 각종 내용을 담은, 마치 '도감'과도 같은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회사 경영진의 비전과 목표가 매우 크고 넓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직원들의 힘이 필요하기에, 그에 대한 독려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다.

직원 개개인의 직무 전문성 키우기를 자평해 달라

예전에는 강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는 못하지만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라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구성원 규모 자체가 적고 한 명이 여러 분야의 일을 두루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 우리 회사 같은 정도 규모의 회사는 시스템이 꽤 잘 갖추어져 있기에 구성원들의 분업화·전문화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다. 덕분에 본인이 맡은 직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

아주인 시절과 내추럴솔루션인으로서의 차이는?

대학 입학에 비해 취업이 늦었다. 공직자가 되려고 시험을 준비했었기에 처음 구직활동을 할 때 나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 대기업 쪽으로만 방향을 잡았다가 중견기업으로 시선을 돌렸다. 품질 관리 쪽에 집중하던 희망 직군도, 기술 영업으로 바꾸어봤다. 그러다 보니 한번도 생각지 못했던 화장품 업계로 진출하게 됐다. 목표하는 직무와 기업만을 바라보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후배를 기대하나?

나의 경험처럼, 본인이 공부하고 경험해왔던 그 무엇이 어떤 분야로 어떤 방향으로 연결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야를 좁게 가지지 말고, 내가 과연? 이라는 의구심은 버리고 일단 뛰어들어 보는 게 필요할 때도 많다. 그러면서 연결된 분야나 직무에서 또 열심히 헤쳐나가면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됐든, 취미이든 아르바이트이든 여러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모든 경험이 결국 '나'가 된다. 학점, 영어점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경험을 해본 사람을 선호하는 시대다.

the garden of naturalsolution

[인사담당자 한마디]

"아주 아름다운 동행을…"

황규태 경영지원팀 팀장

"우리 회사는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성원 개개인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 직무 관련 내외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적극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직종의 구성원들은 해외 전시회를 방문해 견문을 넓힐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넓기에 이러한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은 B2B 사업을 하다 보니 대학생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물론 저희에게는 어려움이지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일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일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지요.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주)더가든오브내추럴솔루션은 천연 추출물 고기능성 화장품원료 소재 개발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R&D 중심 회사로, 2016년 경기도가 뽑은 유망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회사의 장두식 대표(전자공학과 82학번)와 장문식 대표(생물공학과 87학번, 04년 박사학위)는 아주대학교 동문으로 평소 모교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전공소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문화콘텐츠학과

시대의 감동을 공부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게임산업백서에 따르면, 2017년 게임 산업 수출액은 59억2300만 달러(한화 약 6조6980억원)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ICT 수출 실적 중 휴대전화 수출액이 190억4000만달러(한화 약 20조원)로 조사되어, 제조업의 뒤를 잇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부터 방송콘텐츠, 영화, 음악 등 캐릭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는 대한민국 문화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문화 리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스토리텔링 및 기획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다루는 분야는 방송콘텐츠, 영화, 광고, 마케팅, 공연, 전시 분야 등 다수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문화콘텐츠 산업도 역시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장르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융합형 콘텐츠 생산과 플랫폼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3D 영화, AR, VR, 넷플릭스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과 데이터사이언스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더욱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분야를 깊이 탐구하되, 서로 다른 영역을 이해하고 연결함으로써 산업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인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문화는 살아남아 전해집니다.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크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나가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본 학과가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의 집결지인 '인문대학' 내에 위치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과의 커리큘럼은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나뉘는데, 응용학문의 성격을 가진 문화콘텐츠학의 특성상,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영상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이론 습득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한편 실습 중심의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안을 작성하고, 시나리오에서부터 단편 영화, 마케팅 기획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자기주도적인 기획·제작·창작이 이루어집니다. 교과과정에서의 배움은 다시 학과 내 소학회, 파란학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의 교내외 비교과 활동으로 연계되어 공연, 전시에 이르는 자기표현의 확장을 돕고 있습니다.

장예빛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다양하고 탄탄한 이론으로
이해와 비평의 힘에서

파란학기제, 소학회, 프로젝트 등
아주만의 현장력까지

'영감과 통찰의 여정'을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다수의 공모전 수상 사례들이 이러한 기획·제작·창작 활동의 긍정적인 성과 중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학과에는 학사과정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이 존재하고 있어, 문화콘텐츠학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생 학문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학은 연구해야할 연구주제들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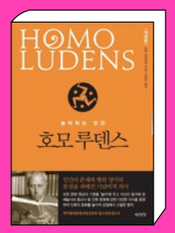
문화와 예술을 업(業)으로 삼고 있거나, 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과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안겨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오래도록 관심을 가져온 고전을 통해 핵심을 관통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만의 철학과 통찰이 담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전이라는 과거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레퍼런스를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스토리텔링 및 기획 전문가'를 위한 장예빛 교수의 추천서

문화와 예술은 쉽게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두 권 정도의 책을 추천해야 한다면, 어떠한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책의 형태여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숙고한 결과,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는 결국 "고전"이었습니다.

고전에서 마주하는 문화콘텐츠의 본질

첫 번째 추천은 고전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진 분야의 고전이라 불리는 콘텐츠들을 끈기 있게 찾아서 경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그것이 영화라면, 할리우드나 한국 영화사의 고전에서 출발해도 좋을 것이며, 광고라면 최고의 카피라이터라 불리는 데이비드 오길비의 인쇄광고에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야가 현대미술이라면, 현대미술사의 거장들을 한명씩 차례로 만나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고전을 마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콘텐츠 속에 숨어 있는 변치 않는 본질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16년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던 쓱(SSG.COM)광고에서 자연스럽게 미국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를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놀이에서 문화까지, 끊임없는 사유

두 번째 추천은 네덜란드 역사학자인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의 〈호모루덴스〉라는 책입니다. 원서의 영문판 제목은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입니다. 호모루덴스는 곧 놀이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하위징아는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된 것이라 역설합니다. 저자는 역사학, 문화인류학, 철학을 비롯하여 법률,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를 종횡무진하며 놀이의 기원과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언어학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놀이의 어원을 밝히고, 이것이 실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중층적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위징아는 놀이에 인간의 본능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고, 법률, 철학, 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기제로 놀이가 작동하는 원리를 풀어냅니다. 놀이의 속성이 축제, 스포츠 등을 비롯한 현대의 문화콘텐츠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표출되는지를 대입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미덕은 놀이의 개념과 속성을 중심으로 놀이의 본질에 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질문한다는 점입니다. 놀이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AU 1973 다산학부대학 Dasan University College

2019 BROWN BAG LECTURE

화요일 12-13시
성호관 303호

무엇을 원하든 생각할 수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2013년 출범해서 7년 동안 매주 화요일 정오에
생각의 힘과 즐거움을 선사해온 명품 고전강연
BBL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하고
2020년부터는 보다 역동적인
Brown Bag Seminars로 전환됩니다.

"끝과 시작; Telos&Arch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9년 고전 브라운 백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BL 2019 TELOS & ARCHE

3	26	안나 카레니나	레프 톨스토이	이병훈(다산학부대학)
4	2	중국의 붉은 별	에드가 스노우	김태승(명예교수)
	9	순수이성비판	임마누엘 칸트	송하석(다산학부대학)
	16	얽힘의 시대	루이자 길더	김영태(자연과학대학)
	30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정재영(다산학부대학)
5	7	송강가사	정철	김진희(다산학부대학)
	14	열하일기	박지원	조성을(인문대학)
	21	공리주의	J.S. 밀	이진희(다산학부대학)
	28	톰아저씨의 오두막	해리엇 비처 스토	최용찬(다산학부대학)
6	4	대학	저자미정	홍성기(다산학부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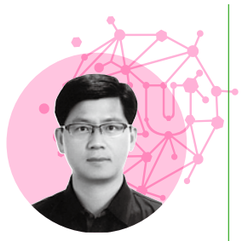
! 강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참가자에게는 간단한 다과가 담긴 Brown Bag이 제공됩니다.
! 강연 참여 학부생에게 비교과 마일리지(1회 5점, 학기 최대 30점)가 부여됩니다.

AJOU HOME & CAMPUS

학교의 또 다른 주인공은 학부모. 학생과 학교 발전의 동반자로서 부모님과 학생 간의 다양한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나의 아들 현우에게

"현우가 미사일에 빠졌어요!"



문동일 / 문현우 학생 아버지

어릴 적부터 문동일 군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늘 아들을 믿어 주는 멋진 아버지. 현재 부안군청 토지관리팀장을 맡고 있다.

현우가 '미사일'에 빠진 것은 중학교에 진학해서였어요. 교외 대회에서 수상도 했지요. 사실 우리 가족에게 미사일은 매우 생소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 누구도 국방, 미사일 등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죠. 고등학교에 가서는 느닷없이 우리나라 국방에 관심을 갖더군요. 그런 현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주변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국방력, 그리고 이를 위한 과학적 우수성과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1987년에 대학에 다녔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발 벗고 나서는 학생 즉, 의식화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시절이었지요. 사실 공부하는 분위기가 통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시국문제를 다룰 만큼 개방적인 시대입니다. 그만큼 국민의식이 선진화 된 것이죠.
우리는 졸업장이 어느 정도는 취업과 미래를 보장해 주었던 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이어야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국방'이라는 특수한 공부를 해야 하기에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는 것보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가 올바른 일에 에너지를 쏟을 때 대한민국이 평안하다는 신념을 다잡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께

"아빠, 전 보물같은 학교를 다니죠"

문현우 / 국방디지털융합학과 3학년

미래 장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문현우 학생은 아주대학교에서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통해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중이다.

아주대학교는 특별한 보물들을 갖고 있는 대학이며, 그 보물중 하나가 국방디지털융합학과입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서는 미래전에 필수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익힘과 동시에 국방 관련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에 없는 아주 특별한 학과라는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학과에서 진행하는 'TOPGUN 프로젝트'는 드론을 사용하여 임무 수행을 하는 등 미래전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저만의 특기를 살리고 훗날 훌륭한 정보통신 장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할 수는 없기에 다른 것들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정보통신계열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기계공학 수업을 듣는 등 어렸을 때 관심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부해보면서 한 분야에만 치우진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3학년이 되니 '새내기 때 왜 그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공부한 것도 아닌 그저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훗날 돌아볼 때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을 소중히 보낼 예정입니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지난 2014년 아주대학교와 대한민국 공군이 협정을 체결한 이후 군에 특화된 정보통신 전문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15년 신설됐다. 일반ICT 기술, 공군특화ICT 기술, 그리고 군사작전을 융합하는 특성화학과다. 네트워크 중심전 전장환경 구축 및 운용을 책임질 최정예 엘리트 기술 장교 양성이 학과의 목표다.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들은 공군으로부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공군장교로 임관, 7년간의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마치면 군에 남거나 방위산업체, 국방관련연구소 등으로진출할 수 있다. 학과는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할일을 할 뿐' 교직원마이크

"매력과 실력있는 '아주인'을 뽑고 돕지요"

누구신지요?

2014년 늦깎이로 아주대학교에 입사해 계속 입학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업무와 입학 전형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입학처 예산회계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얼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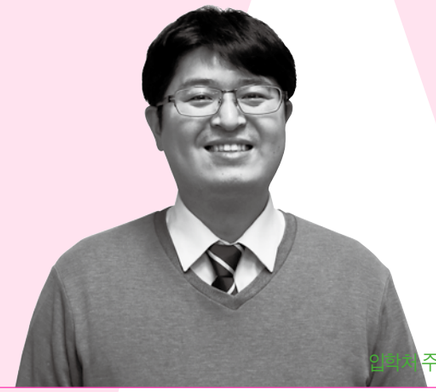
3월은 시작의 달입니다. 학사 일정이 다시 시작되며 교수님들은 새로운 연구와 수업을, 학생들은 개강을, 직원들은 학사와 행정업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입학처는 이 때 2019학년도를 마감합니다. 신입생들이 설렘 속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출발을 일궈냈던 입학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마무리를 합니다. 3월의 입학처에는 여유와 평화가 있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2020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시계획과 전략수립 ▲2020학년도 모집요강 정비 및 입학홍보 ▲원서접수 및 입학전형 진행 ▲합격자 선발·발표·충원 등의 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는 누굴 뽑나요?

'우수 인재'의 정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과 통합의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결하는 다산형 인재'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주인으로 뽑히려면요?

아주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대학, 들어올 때보다 나올 때 본인이 더 성장하는 대학, 내일이 더 큰 대학, 내실 있는 대학입니다. 학생들에게 배움, 성장, 도전, 연결과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력과 매력을 갖추게 해주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일찍 아주대를 맘에 품어준다면, 그래서 보다 일찍 아주대를 준비한다면 좋겠습니다.



입학처 주임 **김대희**

파란학기제
아주대학교 도전학기 프로그램

CONNECTING MINDS

올 1학기에도 내일 향한 거센 파도 타노라-

나와 세상에는 '파란'이 필요해!

정리 **박예슬**
사진 **김성재**

'파란학기제'에 참여한 아주대생들이 올해도 일대 '파란(波瀾)'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번 2019년 1학기 파란학기제에는 20개 팀(64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실천해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아주대의 상징색인 '파란'색에서 따온 이름으로 알(자신의 틀)을 깬다는 '파란(破卵)'과 이런 시도를 통해 사회에 신선한 '파란(波瀾)'을 일으키자는 뜻을 담았다. 참가자들은 인문, 문화·예술, 봉사, 국제화, 산학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학기 파란학기제 참가팀을 소개한다.

- **구해Dream** 인공지능(AI) 기반 물체인식 기능이 탑재된 의료용 VTOL 드론(임성준 김준석 송원용 이기한)
- **EP**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플라스틱 대용품 제작(김지연 한민호 이현규 하윤우)
- **민정설** 특허소송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지정훈 김은설 민지연)
- **AUBE**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위지훈 김영우 박성현 이준영 이민혁)
- **HWP** 무선충전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차세대 방한 외투 제작(이건우 장지원 최석환 김민철 김태원)
- **EARLY ADOPTER** VR기술을 공간에 적용시켜 360도 건물 실사화(김나휘 박지현 이진형)
- **BT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김범준 이상훈)
- **연이공방**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통한 브랜드 리뉴얼(권준하 이유지 박예리 박서연 황지환)
- **BlueMing**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운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회 주관(이경배 오영주 이슬기 박대희 박수병 김태산)
- **BITAMEAN** microYouTube ranking system design(박정련 박지원 황승현 김민우)
- **아이픽** 사례기반 추론을 이용한 입사지원 기업 추천 웹서비스 제작(박현정 박상아)
- **플롯** 1인 미디어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문석형 오형록)
- **Red Ocean**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 및 수익창출(김성결 조서희 송유진)
- **REBUILD** 기준금리 결정(이예경 김기태)
- **요무생** 뉴미디어를 통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제시(김인혜 부석우 이정민 이혜연)
- **한터** 게임을 통한 여성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의 이해(임호준 백주희 김민희 이민지)
- **줄탁동시** 고전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소희 강동옥 문유진)
- **Fest**(최우리)·**MUSE**(안지영)·**이서영**_교환학생 연구조사 세미나

2018-2 파란학기 '훌륭한 뱃사공상' 수상팀 인터뷰

파란에 도전하는 그대들에게!

지난 2학기 파란학기제 최고상을 받은 인터루드팀은 '아주대 최초의 광고제 기획 및 개최'에 도전, 이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인터루드팀이 주최한 교내 광고제에는 14개팀 117명이 함께 했고 유명 패션 브랜드도 동참했다. 파란학기제-아주 도전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주인들에게 인터루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안효진 — 저희 팀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꼭 미리 숙지했으면 합니다. '파란학기제가 좋다더라'는 말에 무작정 시작하면 위험 요소가 커요.

임상규 — '팀원들과 목표를 향해 함께 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저희 팀은 좋은 결과도 얻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신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팀원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라 여기면 서로 큰 갈등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김아영 — 중간·기말 보고서를 미리 써두면 제출 시기가 됐을 때 편합니다. 또 사진을 틈틈이 찍어두면 활동 내역도 증명할 수 있고 시각적인 보고서 작성에도 도움이 돼요.

안희서 — 프로젝트 시작 전 팀원들과 규칙을 정해야 해요. 사실 학기 내내 조별 과제를 하는 것과 같아 힘들 수 있었지만, 저희 팀은 사전에 정해둔 규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안효진 — '진정한 스펙'을 위해 파란학기제에 참여하셨으면 해요. '표면적인 스펙'을 위해 참여하면, 자신만 챙기다 팀원과 갈등이 생겨요. 이보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진짜 스펙'이 남을 거예요.

인터루드

도전과제 : 아주대학교 광고제 기획 및 개최
참가자 : 문화콘텐츠학과 10명
임상규 고현정 김아영 정지은 안효진 양해민 김재현 안희서 이수연 유다형

왼쪽부터 김아영, 안희서, 임상규, 안효진

TEAM INTERLUDE

RESEARCH NEW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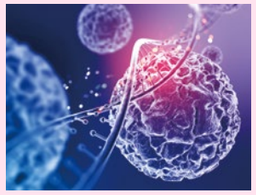
* 사진의 일부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DNA 진화 메커니즘 규명 논문 발표

박대찬 교수
생명과학과

아주대학교 박대찬 교수(생명과학과) 연구팀이 DNA의 진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이 연구 성과는 유전물질인 DNA의 분자 진화·성장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NA의 분자 진화 및 성장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은 분자진화학 분야의 주요 과제였으나, 생물이 탄생하기 전 원시세계의 짧은 DNA 조각이 어떻게 유전자를 암호화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성장했는지가 난제로 남아있었다. 박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 진화 과정에서 유전체가 커지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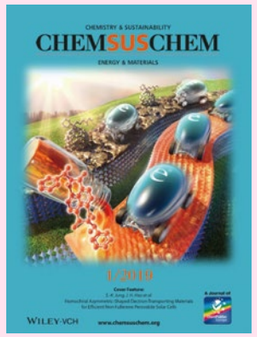
연구팀은 짧은 DNA 끝이 잘 구부러져 스스로 프라이머(primer)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자를 설계했고, 랜덤 서열을 등온에서 선형적으로 증폭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박 교수 연구팀은 그렇게 생성된 가상의 원시 유전체에 대해 차세대 염기 서열법과 생명 정보학 분석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빠르게 자라는 DNA 서열이 가진 진화적 특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구팀의 논문은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 우수한 실험적 모델로, 앞으로 DNA의 분자 진화 및 성장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셀프 프라이밍 분자 복제에서의 선택성(Selection of self-priming molecular replicators〉이라는 제목으로 〈Nucleic Acids Research〉 1월30일 온라인 어드밴스 판에 게재됐다.

고효율 태양전지용 새로운 전자 수송물질 개발

권오필·김종현 교수
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권오필 교수와 김종현 교수(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가 새로운 전자 수송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물질은 고효율 태양전지용으로, 임상혁 교수(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팀이 공동 연구에 참여했다.

권 교수는 "광학 키랄성을 이용해 전자 수송 물질의 용해도 및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은 새로운 전자소재 물질을 개발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며, 다양한 광전자소자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 전자소재의 용해도 개선은 코팅 박막의 두께 및 표면 덮음율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 대면적 인쇄공정에 요구되는 박막균일도 향상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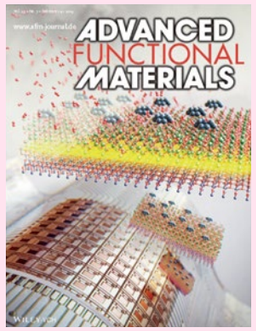
해당 논문 제목은 〈고효율 비-풀러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위한 호모-키랄성 비대칭 그룹을 지닌 전자 수송물질(Homochiral Asymmetric-shaped Electron Transporting Materials for Efficient Non-Fullerene Perovskite Solar Cells)〉이다. 지난 1월10일 소재 에너지 분야 저명 학술지인 〈ChemSusChem〉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공동 연구팀은 비-풀러렌 계열의 전자 수송 물질 연구를 통해 소재 분야 권위지인 〈ChemSusChem〉 11월23일자,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5월16일자에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논문 각각은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투명·유연한 고성능 수소 센서 개발

이상운 교수
물리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이상운 교수(물리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팀이 박막형 기능성 산화물 이종접합을 통해 투명하면서도 유연한 고성능 수소 센서를 개발했다. 이는 수소 에너지 시대에 주목 받을 수 있는 기술로 센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상운 교수팀은 원자층 증착 공정(atomic layer deposition)을 이용하여 박막형의 기능성 산화물 이종접합을 통해 2차원 전자층을 구현하고 이를 고성능 수소 센서로 활용했다.

연구팀은 절연체인 두 산화물 이종접합의 계면에 많은 수의 자유 전자를 속박시키고 이러한 전자층을 통해 미량의 수소 가스를 매우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소자를 개발했다. 10nm(나노미터) 정도의 매우 얇은 산화물을 사용하여 소자가 투명할 뿐만 아니라 휘어져도 동작이 가능하며, 상온에서도 민감하게 동작하는 고성능 수소 센서 소자를 보여줬다.

이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원자레벨에서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원자층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구현했다"며 "이는 DRAM 등의 양산 공정에 적용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일구어 낸 결과로 센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문 제목은 〈High-performance, Transparent Thin Film Hydrogen Gas Sensor using 2D Electron Gas at Interface of Oxide Thin Film Heterostructure Grown by Atomic Layer Deposition〉이다. 관련 성과는 2월14일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수면개선 기능성 소재 기술이전 협약 체결

정이숙 교수
약학과

수면장애를 개선시킬 아주대학교의 고유 기술이 제약회사 '휴온스'에 이전된다.

아주대와 휴온스는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 소재(HU-054)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지난 1월22일 체결했다.

'HU-054'는 입면 시간의 단축과 수면 시간의 연장 효능을 보이는 천연물 소재로, 아주대 정이숙 교수팀(약학과)이 개발 중이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사업〉에서 '기술업그레이드 R&D' 부문 지원과제에 선정됐고, 동물 실험을 통해 '다이아제팜(Diazepam)'과 유사한 수준의 수면 유도 효능을 입증했다.

정 교수팀이 연구중인 소재는 기존 수면제들보다 주간 졸음 등의 부작용을 개선시키고, 천연물 소재인 만큼 독성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오성근 산학부총장은 "정 교수팀이 개발하고 있는 천연물 소재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EWS >>>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 축하합니다

아주대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월22일 종합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184명, 석사 332명, 박사 140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은 장우진 교무처장의 학위수여 보고로 시작해 ▲학위수여식사(박형주 총장) ▲졸업생 대표 답사(이우영) ▲시상 ▲학위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학교법인 대우학원 추호석 이사장과 이영현 상임이사, 안창준 총동문회장과 각 대학 학장, 처장들이 자리해 축하를 보냈다.
박형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지식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유연한 교육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의 시대"라며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가는 인재가 훨씬 긴요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에서 터득한 '배움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 줄 것"이라며 "이곳에 남은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학생을 귀히 여기며 성장의 자각과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대학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맡은 이우영(기계공학과) 학생은 "힘든 나날도 많았지만 이곳 아주대에서의 AFTER YOU, 파란 학기제, 소학회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여러 인연들 덕에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며 "교수님들과 직원분들께 모든 졸업생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 수상자

- 이사장상(전체 수석) - 사회과학대학 박예진(심리)
- 총장상(단과대학 수석)
  공과대학 권슬기 / 정보통신대학 이주형
  자연과학대학 이준영 / 경영대학 손지환 /
  인문대학 신지선 / 의과대학 김민지 / 간호대학 민지영
  약학대학 김소연
- 아주인상(대내외 수상실적 우수자)
  공과대학 김경태 / 정보통신대학 김동관
  자연과학대학 방주용 / 경영대학 양낙영
  사회과학대학 김하은 / 의과대학 정연교 /
  약학대학 정태석
- 총동문회장상 - 의과대학 배충현
- 주한 프랑스대사상 - 인문대학 전수정

"새내기 아주인 환영합니다" 신입생 입학식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2월25일 오전 체육관에서 열렸다. 아주대의 이번 학년도 새내기는 총 2172명이다.
입학식은 장우진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박형주 총장의 신입생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의 입학선서 ▲주한 프랑스대사의 축사 ▲총장 특강 순서로 진행됐다. 입학식 이후에는 아주팝스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과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신입생 대표 김다은(미디어학과), 박건우(경영학과) 학생은 모든 신입생들과 함께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 ▲용기있게 도전 ▲타인과 약자를 배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아주인이 되겠다고 선서했다.
박형주 총장은 특강을 통해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과 연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라며 "학교는 지식 습득법을 끊임없이 익히고 생각의 힘을 기르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총장은 "과거에는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주요했지만 이제는 두 우물을 파야 하는 때가 됐다"며 "전공 말고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문제의 본질을 찾고 해답을 찾아내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영합니다!" 신임교원 임용장 수여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아주 가족으로 함께할 신임 교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이 지난 2월21일 종합관에서 열렸다. 올해 1학기에는 총 27명의 신임 교원이 임용돼 강단에 서게 된다.
이날 자리에는 박형주 총장을 비롯해 각 대학 학장, 처장단이 자리해 축하했다. 신임 교원들은 임용장 수여식 이후 각 부서가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교수학습 및 성평등 상담센터 교육을 받았다.
한편 아주대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교수진을 영입하기 위해 올 1학기부터 신임 교원 정착연구비를 대폭 확대했다. 이공계 최대 1억원, 인문계 최대 5000만원까지 정착연구비를 확대·차등 지원하기로 한 것. 앞서 학교는 이공계 최대 3000만원, 인문계 최대 1500만원의 정착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정착연구비 지원 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신임 교수들이 더욱 도전적이며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19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명단

▲최병주(건축학과) ▲이재웅(물리학과)
▲왕수봉(경영학과) ▲오윤미(불어불문학과)
▲윤창근(행정학과) ▲이종욱(전자공학과)
▲박철형(글로벌경영학과) ▲REMI MALEN FANT(불어불문학과) ▲곽승주(교육대학원)
▲김희경(치과학교실) ▲신재용(예방의학교실)
▲최준영(뇌과학과) ▲조효정(소화기내과학교실)
▲최용원(종양혈액내과학교실)
▲유우식(흉부외과학교실) ▲박도영(정형외과학교실)
▲송지혜(신경외과학교실) ▲한형민(성형외과학교실)
▲허민(마취통증의학교실) ▲손혜민(마취통증의학교실)
▲조오연(방사선종양학교실) ▲최민정(응급의학과교실)
▲서은지(간호학과) ▲최용준(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주양(류마티스내과학교실) ▲김하연(마취통증의학교실)
▲김규남(가정의학과교실)

AWARD & SELECTION

이국종 교수,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이국종 교수(응급의학과교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가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월26일 청와대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 귀순 병사를 치료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 숨은 공로자들의 영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고 심사하는 국민참여형 포상으로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라는 테마로 진행됐다. 이번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접수된 70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례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42명의 시민이 포상을 받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상자들에게 훈·포상을 전달했다.

AWARD & SELECTION

최기주 교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초대 위원장 선임

최기주 교수(교통시스템공학과)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첫 수장이 됐다.
최기주 교수는 지난 3월8일 단행된 7개 부처 장관 교체 개각에서 차관급인 초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임명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22년 3월18일까지 3년간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산하의 신설기관으로,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최 교수는 위원장으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의 수립·정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대중교통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최기주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주 어바나 샴페인 대중교통부 체계분석가, 서울시정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교통영향평가 중앙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교통학회장과 국토부 세계도로위원회 한국위원장, 버스산업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AWARD & SELECTION

로스쿨 백윤기 교수, 행정협의조정위 위원장 위촉

법학전문대학원 백윤기 교수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10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모두 4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1년 1월1일까지 2년이다.
백윤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안성민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백 교수는 앞서 제5기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AWARD & SELECTION

2018 취업률 발표, 아주대 68%로 선전

아주대 졸업생들의 2018년 발표 취업률이 68.3%를 기록해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4년제 일반대학들의 평균 취업률이 62.6%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2016년 8월과 2017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2018년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에 따르면, 아주대는 졸업생 취업률 68.3%를 기록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의 2018년 취업률 68.3%는 학교 규모가 비슷한 '나'그룹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중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2018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 기준 상위 30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63.9%로 아주대 취업률에 비해 4.4%포인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수 3000명 이상인 '가'그룹의 대학 평가 상위 대학과 비교한 아주대의 취업률은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4년제 일반 대학들의 2018년 평균 취업률은 62.6%로 집계되어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구와 산업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다 기업의 신입 직원 채용 규모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들의 진로·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및 학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2019 중등교원 임용고시 23명 합격

아주대 교육대학원 학생 23명이 올해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
아주대 교육대학원은 지난 2월 각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한 2019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총 2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는 각각 상담심리 21명, 소프트웨어 2명이다.
특히 올해는 합격자 수가 지난해 18명(▲상담심리 16명 ▲영어 1명 ▲수학 1명)보다 5명이 더 늘었으며, 다른 대학 교육대학원과 비교해 상담심리 과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교육대학원은 "상담심리 분야의 합격자 배출이 해마다 두드러지고 있다"며 "교수와 학생, 학교 프로그램 등의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도 중등교원 합격자 명단

상담심리(21명)
▲기호철 ▲김남현 ▲김윤재 ▲김효경 ▲박이슬 ▲손소은 ▲윤원진 ▲윤현아 ▲이보경 ▲이아선 ▲이윤선 ▲이은숙 ▲이은지 ▲이은하 ▲정가영 ▲정미경 ▲조수빈 ▲주은희 ▲최수희 ▲한효성 ▲홍소영

소프트웨어(2명)
▲김보련 ▲조아란

NEWS >>>

EVENT

독일대사-수원시장 초청, '아주 특별한 통일 토크'

독일 통일과 한반도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아주통일연구소는 1월24일 아주대 율곡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슈테판 아우어 독일대사를 초청해 〈아주(AJOU) 특별한 통일 토크〉를 열었다. 진행은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1~2가지 사업이 시민들에게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여건이 비슷한 북한 내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싶다"며 "통일 이후 겪게 될 실질적 어려움이 도시간의 자매교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우어 대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10년 동안 동독과 서독 간에 2300만 전화 통화와 400만 회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런 교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다"며 "무엇보다 민간이 서로의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교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우어 대사는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VENT

올해 첫 총장 북클럽, 〈커피 세계사〉 함께 읽어

올해 첫 번째 총장 북클럽이 3월28일 중앙도서관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열렸다. 박형주 총장과 학생들, 교수와 직원 20여명이 모여 〈커피 세계사〉를 함께 읽고 커피에 얽힌 저마다의 사연과 역사, 문화 등의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커피 세계사〉는 탄베 유키히로가 쓴 책으로 커피와 연관된 인류 문명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박형주 총장은 자연스러운 소통 창구로 기능하는 커피의 역할, 커피 발생지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 개인적인 경험 등을 소개하며 참가자들과 이야기 나눴다. 박형주 총장은 "커피라는 음료 자체로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즐긴다"며 "커피를 매개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 연결된 문화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장 북클럽은 학기 중 매달 열리는 모임이다. 총장과 학생, 교직원들이 한권의 책을 미리 읽고 정해진 날 간단한 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 나눈다.

EVENT

학생 창업 지원 위한 '2018 아주창업캠프' 개최

아주대 창업지원단과 LINC+사업단이 함께 〈2018 아주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2018 아주창업캠프〉에서 지난해 소양교육 워크숍을 통해 기초소양교육을 진행한 이후 1, 2, 3차 오디션을 통해 최종 3개 수상팀이 선정됐다.

시상 결과 ▲대상 안현기(기계공학과) 외 3명(아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 ▲우수상 김연제(기계공학과) 외 3명(자기유도 충전방식을 활용한 효율적인 무선 충전기) ▲장려상 김하영(기계공학과) 외 2명(숙면을 위한 실시간 최적 온도 유지 냉온매트)이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의 ▲창의성(아이템의 독창성) ▲기술성(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한계점) ▲완성도(상품화 가능성, 시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는 김경호 교수(경영학과), 정기현 교수(전자공학과), 인묘환 SnC경영컨설팅㈜ 대표이사가 맡았다.

학교는 수상팀에게 창업지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실제 창업 지원 및 〈2019 KIC Start Mass Challenge〉 참가자 선발을 위한 서류제출 기회 부여하는 등 실전창업역량 배양을 위해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18 아주창업캠프〉는 창업지원팀과 창업교육센터가 주관한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화 지원까지 단계별 교육을 통해 창업 모델 개발을 유도하고 교내 창업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PEOPLE

학생 창업기업 쎄쥬씨,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본격 사업화

불어불문학과 학부생들이 창업한 〈쎄쥬씨〉가 경기상상캠퍼스의 올해 신규입주단체 '그루버'로 선정됐다.

아주대 이예은(4학년), 오자은(2학년), 양수민(2학년) 등 3인으로 구성된 〈쎄쥬씨〉는 서아프리카 고유의 왁스파뉴(Wax pagne)천으로 에코백 등의 패션 소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학생 창업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2018년 2학기 파란학기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성과발표회에서 '시선집중상'을 받았다.

〈쎄쥬씨〉는 당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초 사업자등록을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예은 학생은 "CK-II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트디부아르 현지파견교육을 다녀오면서 왁스파뉴 천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파란학기 활동을 통해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입주단체 선정을 계기로 서아프리카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과 함께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는 활동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그루버(Groover, 숲 속에서 함께 모여 즐기는 사람)란 상상캠퍼스 숲 속 코워킹 스페이스에 입주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는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경기상상캠퍼스 창업창직 분야로, 문화예술이나 융복합 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조광국 교수, 한국고소설학회장으로 선임

조광국 교수(국어국문학과)가 최근 한국고소설학회장으로 선임됐다.

조 교수는 올해부터 2년간 임기로 한국고소설학회를 이끌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게 된다.

한국고소설학회는 한국 고소설 작품을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발굴 정리하며, 연구결과의 평가를 통해 소설사 및 소설론, 작가론 등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설립됐다. 지난 1988년 창립된 학회로, 한국 고소설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AWARD & SELECTION

이석원 교수, '국제 요구공학 학술대회' 총괄 조직위원장 선임

이석원 교수(소프트웨어학과)가 국제 요구공학 학술대회 2019년도 총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제 요구공학 학술대회(IEEE RE'19, The 27th International Requirements Engineering Conference)는 올해 9월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다. 올해 27년째를 맞는 이 대회는 300명 이상의 세계 정상급 소프트웨어공학·요구공학 연구자들이 모이는 국제 IEEE 학회이다. 특히, 학계 및 기업 참여가 활발하고 논문 수락률이 11~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RE and Collective Intelligence in the Days of AI'라는 주제로, 스마트 지능 시스템을 소프트웨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요구사항 추출, 모델링, 표현, 설계, 분석 및 검증 등의 다양한 이론과 산업계 응용 및 사례 연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공학 분야 최우수·우수 학술대회 중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IEEE RE'19는 IEEE와 아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내·해외 여러 정부기관, 기업 및 학계에서 후원한다.

AWARD & SELECTION

고정길 교수, IEEE COMSNETS 2020 공동위원장 선임

고정길 교수(소프트웨어학과)가 〈IEEE COMSNETS 2020 학술대회〉 총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고 교수는 해당 학술대회에서 ▲전체 기술 세션 구성 ▲학술논문 심사·선정 총괄 ▲프로그램위원 선정 ▲프로그램 위원 심사 관리·총괄 등을 담당하게 된다.

〈IEEE COMSNETS 2020 학술대회〉는 대형 국제학술대회로 내년에 12회째를 맞는다. IEEE(전기·전자 기술자협회)와 ACM(미국컴퓨터학회)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이 학술대회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보안 ▲미들웨어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 애플리케이션·서비스 분야의 진흥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DONATION

세상 떠난 딸의 뜻 따라, '김수정 장학' 장학증서 수여

'김수정 장학' 제9기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3월26일 열렸다. '김수정 장학'은 아주대 졸업생인 김중권 동문 부부가 2014년 10월 림프암으로 세상을 떠난 딸 김수정 양의 뜻을 기리고자 2015년 기부 약정한 3억원으로 만들어진 장학이다.

김중권(전자73)·서호영 부부는 2015년부터 매 학기 10명의 학생에게 1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1·2학기 각각 장학생 10명이 선발되어 혜택을 받는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박형주 총장과 각 대학 학장, 처장 및 학과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중권 기부자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했고, 안상희 학생(생명과학과)이 대표로 감사의 편지를 낭독했다.

김중권 기부자는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아주대 학생으로서 꿈을 꾸고 이를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중권 기부자의 아내인 서호영 님은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습관' 그리고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라"며 "헌혈뿐만 아니라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한 나눔의 실천"을 당부했다.

박형주 총장은 감사의 말을 통해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기부자님의 뜻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며 "본인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또 받은 것을 우리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DONATION

이진우·유희석·안창준·김호섭 기부자에 감사패 전달

아주대 발전에 기여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흔쾌히 기부금을 내어준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마련됐다. 행사는 3월8일 율곡관 총장실에서 ▲이진우 동문(최고62기, 서해정밀 대표) ▲유희석 의무부총장(아주대학교의료원장) ▲안창준 총동문회장(기계80, 시제이지 대표) ▲김호섭 명예교수(행정학과)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진우 동문은 지난 학기부터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학하면서 학교와 연을 맺고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이진우 동문은 추후 100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는 등 일찍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유희석 의무부총장과 안창준 동문은 각각 1000만원씩을 '아침든든아주' 프로그램에 기부해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DONATION

경영대학원 최봉규 동문 부부 장학금 1억 기부

장학금 등 기부금을 낸 경영대학원 동문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지난 1월28일 오전 율곡관 총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한 기부자들은 모두 경영대학원 출신 동문들로 최봉규·허현숙(최고62기, 잠언의료기 대표) 부부가 2000만원, 방민규(석사58기, (주)UST 대표) 동문이 10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김기권(최고27기, 성호스텐 대표) 동문과 김흥환(석사59기, (주)LAT 대표) 동문은 '아침든든아주' 프로그램에 각 10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최봉규·허현숙 부부는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최봉규 동문은 "아주대 학생들도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방민규 동문도 "아주대 MBA와 인연을 맺은 이후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이 성장세에 있다"며 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U 50·100 1972 - 2022 - 2072 CREATIVE

솔선give

내 자식의 꿈과 친구들의 꿈은 같아야 한다

"아들이 누리는 꿈과 도전 그 친구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지난해 1-1-1캠페인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기부하기로 약정한 서정혁 마티덤 대표. 서 대표는 지난해 아주대 금융공학과에 입학한 자녀를 둔 아주 학부모이기도 하다. 서 대표의 뜻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마티덤장학생' 1기가 선발될 예정이다.

"

지난해 5월 아주사랑콜센터(2019년 3월 폐지)로부터 1-1-1캠페인 장학을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기부를 고려하고 있던 차여서 한 달에 만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부를 하게 됐다. 아들과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쓰인 것 같다. 장학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음에도 각종 이유로 당장 쓸 자금이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20대 초반 한창 예민한 시기에 대놓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기도 힘든 친구들을 가능하면 장학생으로 선발해달라고 했다. 공부를 하는 기본 환경을 갖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개인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장학명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마티덤이 스페인 1등 화장품 브랜드이고,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거나 소아암 환우들을 돌보는 등 사회기여에 적극적이다. 마티덤 제품을 한국에 유통시키는 회사로서 본사가 지켜온 가치를 계승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다. 사실 꾸준히 피부병 환자나 노인분들을 위한 제품지원 등 나름의 사회기여를 실천해왔다. 장학을 위한 기부는 아주대가 처음이다. 좋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좋은 일에 회사 이름을 쓰고 싶었다.

아주대 학생인 아들은 기부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게 된 것 같다. 그것도 친구를 통해서. 친구들과 불편하고 어색할까봐, 혹시나 우쭐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었다. 그래서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들어도 모르는 걸로 해라. 아버지와 아버지 회사가 하는 일이다'고 했다.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한다. 장학생들의 편지를 받거나, 직접 만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했다. 어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학교에 있었으면 한다.

"

서정혁 학부모/마티덤 대표

MARTI DERM®
LA FORMULA

Donors

아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1-1-1 캠페인

강윤환
고재만
권기형
김상동
김승규
김옴운
김종완
노천규
류상현
박정준
박동애
박충림
방병천
배학원
변태환
손석상
손순환
송군섭
안혜영
오주영
유태근
이경중
이근석
임정혁
정규범
주동준
지염교
김형진
원소영
김근배
도정열
이동호
이재성
조영상
노형배
이정우
(주)나노헥스
(주)성호스텐
(주)아이앤엘 장용길
(주)에이피피
(주)한빛메디랩
TRIZM CONSULTING
간덕기
강동근
강정규
강정란
강경원
강경태
강기현
강덕훈
강두경
강명구
강명덕
강민구
강병돈
강병욱
강석배
강석윤
강석환
강선숙
강성영
강산구
강신호
강연희
강영복
강은양
강익균
강인희
강종우
강주성
강준성
강진모
강태석
강태현
강하중
강해순
강호출
강희정
경민호
경정현
고강현
고민진
고병수
고병효
고봉석
고상민
고순재
고영표
고우리
고유경
고재용
고지애
공태준
곽기인
곽동순
곽병철
곽정기
구병준
구성현새과의원
구유회
구지영
구재군
권기종
권기헌
권대진
권민구
권민영
권민정
권상호
권순정
권순호
권영민
권영선
권영숙
권영일
권오성
권오일
권오종
권오필
권용금
권우순
권우택
권이수
권익주
권익진
권인철
권재근
권재일
권주빈
권주연
권홍배
권혁용
권혁천
권형철
권홍배
금동순
김가남
김개동
김갑식
김경수
김경숙
김경아
김경원
김경태
김경현
김경희
김경희
김관균
김관호
김근영
김근호
김근태
김근표
김근희
김기섭
김기숙
김기준
김기택
김기쳑
김기호
김길성
김남식
김남숙
김남포
김내혜
김대성
김대용
김대중
김대현
김대홍
김도선
김동규
김동석
김동수
김동완
김동익
김동현
김동용
김두현
김명수
김명옥
김명헌
김명호
김명희
김문석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옥
김미자
김민구
김민선
김민영
김민우
김민정
김민주
김병수
김병일
김병준
김병진
김병태
김병기
김보선
김복순
김복희
김봉배
김봉춘
김부순
김상룡
김상섭
김상욱
김상진
김선구
김선숙
김성이
김선자
김선화
김선희
김성곤
김성룡
김성용
김성우
김성헌
김성희
김성훈
김세기
김세철
김소운
김소진
김송암
김수광
김수근
김수영
김수용
김수정
김수현
김숙
김숙아
김숙희
김순태
김슬찬
김승만
김승우
김승주
김승진
김승찬
김승희
김시범
김시천
김신
김완란
김아란
김양수
김양숙
김연석
김영국
김영금
김영기
김영길
김영무
김영묵
김영빈
김영서
김영석
김영수
김영식
김영오
김영종
김영주
김영진
김영천
김영춘
김영환
김영훈
김옥진
김요용
김용갑
김용기
김용덕
김용성
김용태
김옥
김옥중
김용일
김용식
김원오(김정희)
김유권
김유신
김유경
김윤기
김윤태
김윤판
김은경
김은규
김은숙
김은실
김은정
김은주
김은한
김은호
김은희
김의환
김인수
김일수
김숙자
김재경
김재문
김재욱
김재은
김재정
김재현
김재호
김정대
김정선
김정수
김정우
김정희
김정천
김정헌
김정효
김정훈
김정희
김종갑
김종구
김종석
김종천
김호주
김화옹
김희정
김희선
김희숙
김한언
김한이
김한우
김한준
김형택
김혜선
김혜영
김혜정
김호섭
김홍구
김홍석
김홍천
김홍수
김홍식
김홍주
김화옹
김홍수
김희선
김희숙
김희언
김희정
나기석
나은우
나인기
나창용
나충주
나태영
나혜련
나환수
남경숙
남경택
남광희
남궁규태
남미향
남상신
남양평유통
남정호
남현우
노동현
노시평
노은란
노진형
노찬규
노학래
노희정
다인금속
도미진
도학순
라경미
류승우
류연철
류원재
류인환
류재안
류종규
류해기
류홍천
류화라
마명섭
마인화
맹미남
명선아
맹은경
명한수
목익수
문경수
문경임
문병희
문상매
문수항
문영준
문원길
문유정
문은표
문재호
문종호
문태십
문현배
문현지
문형열
문혜경
문혜원
문희봉
미래공조(주)
민경도
민동기
민병윤
민병현
민종식
민찬규
민철기
민평기
민형기
박강서
박건용
박경국
박경호
박광배
박광용
박권수
박규태
박근우
박기원
박기준
박기호
박낙원
박대규
박대열
박동원
박동진
박민규
박명상
박명규(부)
박명수
박문순
박미란
박미화
박민경
박민구
박범
박병권
박병균
박병윤
박병훈
박상규
박상보
박상오
박상욱
박상철
박상호
박성금
박선애
박성용
박성화
박성숙
박성순
박성윤
박성진
박성희
박소영
박수경
박수용
박수식
박순애
박순연
박순옥
박순응
박희희
박설
박영국
박영동
박영란
박영무
박영복
박영원
박영철
박예리
박용배
박용석
박용아
박용채
박용환
박원규
박원희
박유창
박윤창
박은준
박인규
박인기
박인백
박일분
박일석
박임임
박재경
박재관
박재길
박재범
박재연
박재홍
박정미
박정옥
박정운
박정용
박정임
박정훈
박종경
박종민
박종석
박종설
박종식
박종용
박종채
박종춘
박준규
박준화
박지선
박진임
박창동
박창원
박천수
박철균
박춘화
박형우
박형진
박혜정
박해태
박현지
박현범
박형우
박형진
박형섭
박성희
박성용
박영무
방강영화
배공주
배나식
배두열
배상권
배수환
배광환
배후덕
백경원
백규호
백금순(모)
백길선
백두산
백미아
백미자
백선희
백승천
백승환
백윤기
백은주
백정길
백자현
범진환
베스톤비뇨기과의원
변경수
변동진
변승환
변희주
보광토탈이엔지(주)
봉선호
시운드팩토리
서귀암
서기석
서기준
서명원
서문호
서배선
서병순
서보건
서봉원
서봉현
서석재
서성택
서영대
서영옥
서은원
서은지
서장남
서정덕
서정원
서지원
서현숙
서형석
서형탁
서화덕
서희석
석명숙
선우명훈
선종연
설미애
설용훈
성락춘
성민제
성선복
성현
소병천
소의영
손경아
손경희
손규섭
손순이
손연진
손정훈
손종진
손지영
손태식
손현숙
송경민
송경수
송규현
송기상
송기정
송기준
송기찬
송길성
송나래
송명동
송명종
송미숙
송민근
송병섭
송석희
송성용
송수곤
송영섭
송영우
송원재
송윤희
송장영
송재경
송재길
송정근
송정수
송주은
송진호
송치영
송하석
송현호
송형석
송혜영
송호영
송재
송재권
송재민
송재석
송재홍
송재훈
송정석
송정식
송정화
송종일
송중준
송중엽
송중일
송중준
송지숙
송창근
송창영
송창현
송창호
송치성
송태경
송태석
송태식
송태영
송태윤
송태종
송태창
송한솔
송한수
송한중
송해옥
송현준
송현정
송현섭
송현주
송현준
송현기
송현덕
송현미
송현섭
송현아
송현우
송현준
송현규
송현근
송현빈
송형우
송형준
송형근
송형규
송호준
송홍구
송홍석
송홍천
송호주
송화옹
송희수
송희선
송희숙
송희정
송희라
송희섭
송희언
송희정
송희진
송희화
신경수
신경식
신경아
신경의
신경자
신경주
신경진
신경철
신경희
신경호
신경훈
신경진
신경철
신경대
신경철
신경식
신경원
신경한
신경호
신경희
신경호
신경희
신경식
신경원
신경지
신경진
신경철
신경섭
신경수
신경식
신경호
신경희
신경수
신경원
신경섭
신경식
신경호
신경주
신경국
신경섭
신경철
신경현
신경락
신경식
신경우
신경주
신경희
신경의
신경우
신경주
신경구
신경아
신경주
신경희
신경호
신경진
신경원
신경철
신경수
신경식
신경호
신경진
신경원
신경철
신경수
신경식
신경호
신경진
신경원
신경철
신경수
신경식

이민호
이병선
이병욱
이병조
이봉선
이봉헌
이부영
이분열
이삼주
이상권
이상도
이상미
이상성
이상운
이상헌
이상현
이상훈
이석원
이선경
이선이
이선형
이성식
이성아
이성엽
이성우
이성운
이성주
이성진
이성혁
이성현
이성훈
이성희
이송호
이수나
이수남
이수원
이수자
이수진
이순선
이순형
이순화
이승준
이승진
이승헌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시영
이신영
이신형
이연실
이연희
이영경
이영국
이영록
이영민
이영욱
이영주
이영채
이영철
이영현
이예리
이예림
이오순
이옥자
이왕형
이용구
이용로
이용수
이용원
이용주
이용훈
이우근
이우암
이운갑
이운호
이원돈
이원수
이원희
이윤진
이윤희
이은경
이은규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형
이은호
이은희
이응표
이인국
이인규
이인수
이인숙
이인철
이인풍
이인호
이인환
이일석
이일주
이장근
이재걸
이재규
이재길
이재숙
이재영
이재의
이재평
이재호
이정민
이정상
이정수
이정원
이정일
이정재
이정준
이정호
이정훈
이제현
이종관
이종레
이종연
이종욱
이종원
이종태
이종표
이종호
이종호(부)
이종화
이주연
이주한
이준기
이준범
이준섭
이준영
이준원
이준혁
이준호
이지복
이지상
이지선
이지용
이지윤
이지현
이지환
이진구
이진우
이진호
이찬영
이찬용
이찬욱
이창근
이창민
이창수
이창용
이창우
이창원
이창주
이창훈
이채우
이철기
이충균
이태욱
이태용
이태한
이태희
이필우
이하렴
이하영
이한구
이한석
이해나
이해준
이항
이항길
이항희
이헌규
이헌림
이현상
이현석
이현주
이현진
이현찬
이형무
이형민
이형익
이호군
이호원
이화춘
이휘동
이희경
이희련
이희정
인정근
인정숙
임경빈
임경숙
임경환
임근찬
임근택
임금주
임기영
임대혁
임동하
임명재
임명훈
임문채
임민호
임병수
임병조
임석주
임석철
임선일
임성욱
임성혁
임연희
임영교
임영무
임옥순
임용백
임인재
임재성
임재익
임재혁
임정근
임종석
임지석
임진규
임진수
임찬관
임창규
임채원
임춘기
임춘성
임태성
임해영
임호순
임홍식
임홍순
장경욱
장광열
장기숙
장기순
장병정
장봉기
장석민
장선규
장선옥
장소영
장영수
장영하
장외숙
장우진
장유진
장은미
장은선
장은영
장은혜
장인선
장정애
장주형
장준북
장준석
장준영
장중순
장지선
장직순
장진업
장진영
장재권
장재성
장재원
장재준
장재창
장종권
장준모
장지혜
장창경
장창인
장춘기
장춘용
장충남
장태선
장판용
장학희
장해송
장해연
장해욱
장해준
장현정
장현주
장혜승
장혜인
장호채
장회원
장회채
조걸훈
조경숙
조광국
조광순
조규태
조규희
조길원
조덕기
조동식
조무창
조문준
조백형
조보희
조봉호
조성란
조성례
조성식
조소영
조수진
조양숙
조연제
조영록
조영욱
조영호
조용배
조용혁
조우철
조원규
조원석
조은아
조은자
조은주
조은하
조익수
조인성(바이더웨이 수유본점)
조정한
조중열
조중환
조진우
조현규
조현수
조현우
조형규
조혜성
조호진
조환명
조환철
조윤주
주광진
주식회사 엔에프씨
주창원
주필상
지승렬
지중근
진명주
진명철
진선희
진성호
진승표
진주현
진창수
차상훈
차선희
채교석
채규창
채유현
채장범
채장아
채철수
천덕진
천동필
천명길
천순자
최경수
최관수
최광순
최권영
최균식
최근배
최근실
최금숙
최기식
최기원
최도연
최모석
최문규
최미자
최병무
최병욱
최복희
최봉혁(부)
최선숙
최성호
최성훈
최세선
최소명
최수연
최수영
최숙희
최순덕
최순은
최승순
최승현
최신영
최영기
최영두
최영락
최영재
최영호
최영환
최용훈
최운용
최원석
최유진
최윤호
최용현
최은미
최은주
최은화
최인숙
최재승
최재정
최재현
최점례
최정영
최정재
최정주
최종식
최종욱
최준환
최중원
최진구
최진연
최진오
최진형
최창기
최창식
최철준
최충식
최태근
최하영
최하원
최학근(부)
최형경
최형근
최혜선
최홍선
최홍일
추소정
추호석
탁동현
표준상
하덕위
하원국
하은진
하정임
하종진
한경숙
한관희
한기복
한기상
한동규
한미란
한백일
한봉희
한상욱
한상희
한석근
한수란
한승업
한신영
한아영
한재웅
한정석
한정숙
한종인
한종호
한지영
한지원
한형욱
한호
한호윤
한화연
함21주
함경숙
함금옥
함순정
함흥식
허경화
허석수
허숙현
허순영
허순옥
허영일
허인영
허준
허진
허팔만
현대지질
현동환
현명선
현성미
현수왕
현정은
호정화
홍광영
홍광의
홍권희
홍기영
홍남기
홍대의
홍덕표
홍범준
홍봉숙
홍석범
홍성기
홍성동
홍상만
홍상봉
홍성수
홍성호
홍세경
홍승열
홍신표
홍영수
홍영표
홍원기
홍원인
홍윤기
홍은주
홍진기
홍진태(부)
홍철현
홍한표
황경주
황규호
황근환
황덕모
황동선
황두성
황미라
황민숙
황민하
황병철
황선숙
황선영
황성욱
황성조
황수연
황우성
황인일
현정은
황원복
황윤근
황운상
황의진
황인극
황인섭
황인숙
황정윤
황지현
황찬원
황창순
황철환
홍성수
홍성호
홍세경
홍승열
홍신표
홍영수
홍영표
홍원기
홍원인
홍윤기
홍은주
홍진기
홍진태(부)
홍철현
홍한표
황경주
황규호
황근환
황덕모
황동선
황두성
황미라
황민숙
황민하
황병철
황선숙
황선영
황성욱
황성조
황수연
황우성
황인일
현정은
황원복
황윤근
황운상
황의진
황인극
황인섭
황인숙
황정윤
황지현
황찬원
황창순
황철환
홍성기
홍성동
홍상만
홍상봉